THE K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846 1982년 6월10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une 10, 1982

JUN 1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점 서
광고부장 : 송 광 호

자유 · 개방된 정치체제 중요

남한 제외한 통일논의 일체거부

헤이그 미국무 한국일보특파원과 인터뷰

(9일=LA지사발)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8일 한미 양국이 지난 1세기동안 강력하고 각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상기하고, 양국은 안정과 번영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 새롭고 생산적인 제2세기를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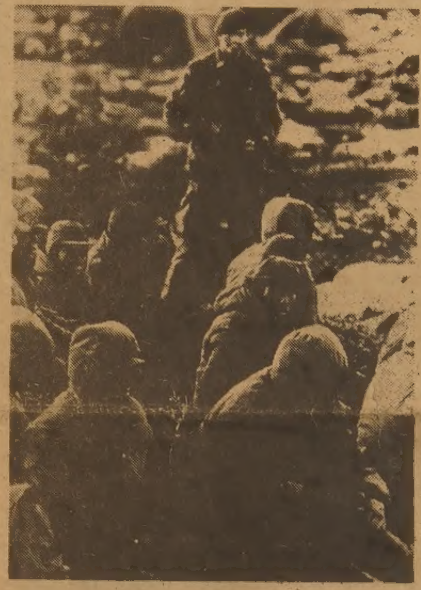
헤이그 장관은 8일 한국일보 워싱턴 주재 조순환 특파원이 이임차 워싱턴을 떠나기 전 가진 서면 회견에서 동반자관계의 두나라 국민은 자유가 보장된 개방적인 정치체제 발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자고 역설했다.

헤이그장관은 또한 남북한 관계에 언급, 전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1.22 대북한 제의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이를 전폭지지하며, 북한이 대화대신 침략을 택할 경우 침공은 격퇴될 것은 물론 침략의 댓가를 크게 치를 것임을 경고했다.

북한은 장차 어떠한 침략을 시도하더라도 잘 무장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건재하고, 유사시 보충병력이 신속 발동할 것을 계산에 넣어야한다고 헤이그장관은 말했다.

경제수준에서는 한국과 경쟁이 안되는 북한이 현재 군사력면으로 약간 우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체능력으로 대규모 공격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며 경제력 불균형의 영향이 군사면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헤이그장관은 말했다.

88년 올림픽의 서울유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며, 비공식 민간교류를 확대, 상호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한 헤이그장관은 또 북한이 통일문제에 관한 남한과의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서울측을 대등한 참석자로 인정치않은 한 미국은 어떠한 통일논의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 전쟁 포로.
영국 국방성은 포클랜드 구스그린 전투에서 생포한 알젠틴 군인들을 경비하고 있는 영국해병의사진을 공개했다. 영국은 달윈, 구스그린 전투에서 1천2백 여명의 알젠틴군인을 생포한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가 46.4%가 소작

법적폐지 불구 점차 증가

(서울9일=연합)소작제가 법적으로 폐지된지 34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에서 소작제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

농수산부가 금년 초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375농가중 46.4%가 소작농이다. 60년 26.4%, 70년 33.5%와 비교하면 소작농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소작농의 농지도 60년도 전체 농지의 13.5%에서 81년에는 22.3%로 늘었다.

소작농이 경작해내는 농작물 또한 전체의 20.7%(60년)에서 38%로 늘었고 소작료는 70.2%가 농작물로, 18.1%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소작인과 소작주간의 계약은 91.5%가 구두로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은 대개 1년 미만이다.

농수산부가 소작제에 관한 통계를 실시한 것은 소작제에 관한 입법을 위한 예비조치이다.

한국의 소작제는 1948년 개정농토법에 의해 불법화 됐다.

은행원 부직 일체금지

감독원, 금융스캔들 대책

(서울9일=연합)최근의 금융부정스캔들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은행감독원은 은행직원의 사채활동및 부직을 일체 금지시켰다.

은행감독원은 9일 각 시중은행장들에게 부직을 가진 은행원들은 7월까지 권고사직시키도록 지시했다.

각 은행들은 또 앞으로 가족이름으로 사업하는 행원들의 특혜여부를 철저히 캐도록 지시받았다.

=리틀 야구=

82년7월3일(토)
코로네이션·파
7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등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5명의 북한인 추방령

파마나, 극좌파접촉 기도

(파나마시티)외교관이라고 주장하는 5명의 북한인들이 파나마의 극좌파와 접촉을 벌인 혐의로 파나마에서 쫓겨났다.

지난 2일 추방령을 발표한 파나마이민성의 패시피코·사비드라 이민관은 "이들이 극좌파와 접촉을 시도, 파괴기도(Subversive Activities)혐의로 추방됐다"고 말했다.

사비드라 이민관은 "이들의 여권에는 남미수개국을 방문한 사실이 기재돼있으며 그들이 추방된 뒤 어디로 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코스타리카영사관은 이들 북한인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 5명의 북한인의 이름은 김용, 백인수, 최수길, 고두봉, 김현구이다.

3식구가 한집에

대도시 주택난 점차심화

(서울9일=연합)한국의 주택건설업이 침체되기 시작한 79년이후 대도시들의 주택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9일 건설부가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의 무주택자 9천가구를 대상으로 건설부가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세대당 가족수가 79년 4.3명에서 81년 4.4명으로 늘었고, 도시가구의 91.7%가 전가족이 1개 내지 2개의 방을 쓰고 45.5%가 한 집을 다른 2식구와 나누어 쓴다.

도시인들 중 30세이하 가장으로 무주택자는 78년 20.9%에서 81년 19.8%로, 40세이하는 45.3%에서 44.1%로 줄었고, 대신 40세 이상은 22.9%에서 25%로, 50대 이상은 78년 10.8%에서 81년 11.1%로 늘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일,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비동맹 외상회의

북한제의 거부

(서울8일=연합)8일 한국외무부대변인은 쿠바 하바나에서 열린 비동맹국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요청한「남한에서의 모든 외국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안이 부결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6일 끝난 하바나회의의 결정은 지난 72년 7월4일 서울·평양 공동성명에 바탕을 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한국국민의 열의를 비동맹국이 다시 한번 지지해 준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이같은 국제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오히려 남북이 함께 모여 평화통일에 관해 토의하자고 촉구했다.

비동맹외무장관회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 내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로 촉진될 것이다"라고 말해 북한의 처음 주장보다는 약간 누그러진 조항을 채택했다.

북한 5년내 도발 가능

(워싱턴4일=연합)워싱턴·포스트지는 4일 미국 외교분석가의 말을 인용, 향후 4~5년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도했다.

분석가는 미국과 한국은 현재 남한보다 2배나 우세한 북한 군사력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 장비현대화에 저한 방위가 중시되고 있다.

포스트지는 북한의 소련제 T62탱크는 2일만에 서울을 공격할 수 있으나 한국과 미국군이 유사시 병력을 모아 침략군과 대항하는데는 1주일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상의 북한군은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 현재 약 80만명이며 남한은 주한미군 3만9천명을 포함, 60만명이 채 못된다.

동 지는 전 주한 연합군사령관 위컴장군의 말을 인용, "북한은 포고없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평화시에도 공격적인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에 대해"평양측은 전략적 우위에 위협을 느껴 무력도발을 자행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산악 특공대 10만명

서울까지전투기3분·탱크이틀

또 다른 분석가의 추정에 의하면 일단 군사분계선만 넘으면 서울까지의 거리는 26마일에 불과, 북한의 전투기들은 이륙3분만에 서울상공에 나타나므로 이같은 기습에 대비, 전방의 철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곳에 중장비포대및 기타 군사시설을 요새화 시키고 있다.

또 북한은 10만명의 특공대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 60년대말 이래 10배로 늘어난 이 특공대는 산악전에 능해 산동성이를 타고 순식간에 침투, 속전속결의 전법을 사용하게끔 훈련됐다.

군사행동을 잘 하는 나라"라고 보도했다.

위컴은 이같은 북한의 도발은 중동 페르샤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중동위기로 눈을 돌리고 있을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페르샤만 주둔미군은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면 보충력의 역할을 한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조치훈 2국서 설욕

일본바둑 "홍인보"방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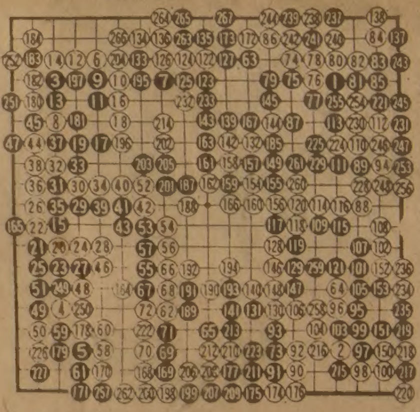
(동경)제37기 "홍인보" 결승 도전 7번 승부 제2국에서 조치훈 홍인보가 제1국의 패배를 설욕, 4일하오 도전자 고바야시9단에게 267수만에 3집반차로 이겨 1승1패를 기록, 일본바둑계는 앞으로 승부의 방향에 관심을 집게하고 있다.

조홍인보는 첫날 대국에서 좌변중앙에 큰 세력을 쌓은데 이어 이틀째는 백74로 상변을 유린한 후 백94등 연이은 승부수를 구사했다.

고바야시9단은 흑95로 추격을 가했으나 흑111수의 완착으로 국면은 백에게 미세한 우세로 기울었다.

대국이 끝났을 때, 조9단은 1분, 고바야시9단은 1시간58분을 남겼다.

제37기 本因坊결정전
도전 7번기 제2국 (1～267)



백·本因坊 趙治勳9단 흑·도전자 고바야시9단
(제한시간 9시간 5호반공제) ※186은 159의자리.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6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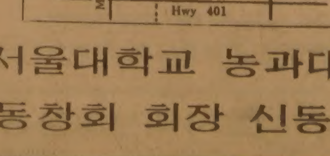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야유회

봄맞이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동창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6월19일 (토)
오전11시 정각
장 소 : ELDORADO PARK
문의처 : 신동운 ☎ 497－4405
서동준 ☎ 863－992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동창회 회장 신동운

씨알여름학교안내

씨알여름학교안내

자 격 : 유치반부터 9학년까지
시 간 : 아침9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월～금(Day Care는 8시～6시까지)
기 간 : 7월5일～8월13일까지
장 소 : John Wanless Public School
250 Brookdale Ave. TOR.
(로렌스와 아베뉴로드)
수업료 : 1학생 160불 · 2학생 310불 · 3학생 400불
뻐 스 : 동 · 서, 다운타운, 미시사가지역에서 운행합니다. 6월20일까지.
441－2986으로 신청요망.
뻐스비 : 한학생 140불, 두학생 270불.
미시사가－한학생 160불, 두학생 300불
뻐스신청마감 : 6월20일
※DAY CARE SERVICE－60불추가.

씨알여름학교신청서

학생이름 ______
생년월일 ______
현재학교이름 ______
학년 ______ Brough of ______
주소 ______
______ Postal Code ______
전화번호 Res.______ Bus.______

신청과목 영어 · 수학 · 과학 · 피아노 · 바이올린 · 미술 · 무용 · 태권도 · 축구(한국어는 필수 과목임—무료)
▲이중에서 두과목만 ○표 치십시오.

보낼곳 THE SEE－ALL KOREAN SCHOOL 150 MADISON AVE. TOR. M5R 2S5
부모이름 ______ 싸인 ______

야유회에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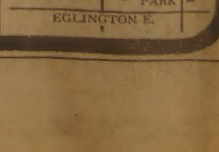
금번 상록회의 발족을 자축하여 조촐한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록회는 가까운 Winnipeg에서 오붓하게 살다가 이곳 토론토에 와서 친교와친목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순수한 친 목회입니다.

Winnipeg에 사시던 분이나 관련이 있으신분 모두 환영합니다. 만약 참석 못 하시는 분은 상록회 주소록을 작성할 예정이오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6월19일(토) 오전11시
장소 : SUNNY BROOK PARK
(At Eglinton E. at Leslie St.)
●점심은 일절 상록회에서 준비함.
연락처 :
김마리아 782－4027
김 순 옥 531－8740
민 복 자 588－1915
이 경 숙 481－417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이성기군·천주교팀 우승

제2회 한인탁구대회, 60여명 참가

지난 5일(토) 웨스트 웃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한인탁구대회의 남자개인우승은 이성기군이 차지했고 단체전은 천주교팀의 우승으로 끝을 내렸다. 선수 60여명이 참가, 남자 단식22명 여자단식 5명, 복식 16개조 단체전 6팀등으로 나누어진 대회로 금년이 두번째 대회이다.

단체전결승에서는 김동천이 주축이 된 천주교팀이 연합교회A팀을 3승2패로 꺾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
우승: 천주교회 상록수
준우승: 연합교회 A팀
3위: 연합교회 B팀

●남자개인 단식
우승: 이성기
준우승: 강희원
3위: 이상규

●여자단식
우승: 표정애

●복식
우승: 이창오, 김인옥
준우승: 박남진, 이상규

남자단식 우승 이성기군

온타리오 심판자격 보유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 이날의 히어로가 된 이성기군은 교민탁구대회에서 이미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었다.

이군은 한국인으로는 지난 79년 유일하게 온타리오주 심판자격증을 획득, 매년 CNE오픈, 노위치유니온 대회등에서 심판으로도 활약했다.

이군은 지난 80년 캐나다 대표로 네덜란드와의 게임에 참가했으며, 81년 워터루대학 컴퓨터·싸이언스를 졸업하고, 현재 Honey Well의 Project Leader로 근무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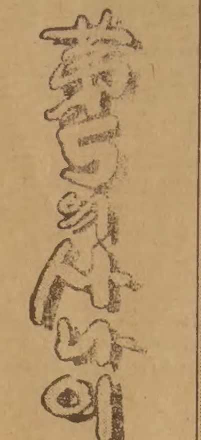
그는 "현재 캐나다 국가심판 자격증을 준비 중이다. 다음 목표인 탁구의 국제심판 자격증을 획득하는데에는 [torn]통 5년부터 8년까지 걸린다.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군은 현 탁구협회 고문 이영환 씨의 장남이다.

◆단체전 복식우승을 차지한 천주교팀의 김인옥(전 국가대표)·이창오 조.

◆경기도 대표선수였던 여자단식우승자 표정애씨.

◆남자단식우승의 이성기군

金聖鍾作



<3>

어떤 情事 ③

『해운대에 가자. 참 호텔 잡아 놨어?』
『그럼. 너 요새 해운대 일류호텔에 방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알았다. 알았어. 낭군이 부산휴지이시니 어련하겠니. 아휴 더워. 빨리가서 샤워부터 해야겠어.』
『그래. 나가자.』
차 속에서는 운전사 때문에 점잖게들 굴었다.
김명자의 남편은 외과의사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솜씨가 좋아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걱정이라 했다.
『너희집 영감님, 여전하시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바캉스도 못 가신단다 얘. 자기는 못 가니까 나보고 애들 데리고 어디 갔다 오래.』
『너희 영감이나 우리집 영감이나 너무 바빠서 탈이구나.』
명자가 잡아놓은 H호텔방은 전망이 온통 푸른 바다였다.
『어떠니?』
창문을 활짝 열어제치며 명자가 물었다.
『너무 좋다, 얘. 아, 바다냄새!』
문자는 가슴을 쭉 펴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머나, 저 사람들 봐! 꼭 개미떼 같애!』
백사장에는 수십만명의 벌거벗은 인간 군상들이 흡사 구더기처럼 들끓고 있었다.
『아, 내가 처녀라면 얼마나 좋아.』
문자는 중얼거리다가 옷을 훌훌 벗어버렸다.
『어머나, 멋져… 얘기 엄마 몸이 어쩌면 그렇게 멋지지…』
명자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정말 멋지니?』
문자는 젖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허리를 틀었다. 하복부와 허벅지가 교차되는 부분에 살짝 음영이 보였다. 탐스럽게 살이 오른 몸이면서도 허리가 가늘어 더없이 육감적인 느낌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리고 교태를 지으면서.
『어떠니? 이만 하면 녹일만 하겠니?』
하고 물었다.
『너 보면 녹아떨어지지않고 못 배기겠다, 얘.』
명자는 부러운듯 말했다.
『어쩌면 젖이 그렇게 처지지도 않았니.』
『우유만 먹였거든. 너 한번 벗어봐.』
명자는 부끄러운듯 옷을 벗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균형을 상실하고 있었다. 두개의 젖가슴은 힘없이 늘어져있었고 허리통은 굵기만 했다. 엉덩이는 밑으로 넓게 퍼져있었고, 다리는 짧고 굵었다. 한 마디로 문자와는 상대도 되지 않았다.
『너, 운동하니?』
『응, 가끔…』
부러운듯 쳐다보는 친구의 눈초리에 그녀는 자못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자기들만의 은밀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확보된 지금 그들은 못할말이 없었다.
『넌 요새침대 사정이 어떠니?』
문자의 물음에 명자는 신붕치않다는듯 고개를 저었다.
『한달에 한번꼴이나…』
『어머나, 너무 했다. 얘.』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술려고해. 그리고 언제나 술이야. 난 술 냄새맡기만 해도 지긋지긋해. 자리에 눕기만 하면 곯아떨어지는거야. 내가 보채기 전에는 시치미를 떼고 있는거야.』

白沙場에는 수십만의 벌거숭이 群像이…

朴 男·그림

나체표지로 논란

사실주의 복고 다룬 뉴스위크지

(뉴욕지사)지난주 발행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나체화사진을 표지에 실어 논란과 화제의 대상이 되고있다.

사실주의화풍이 미술계에 되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한 「예술이 인생을 묘사한다: 사실주의의 복귀」라는 큼직한 제목과 함께 표지전면에 어두운 녹색을 배경으로 상반신 누드의 무표정한 여인이 앉아 있는것.

「S의 초상」이라는 이 그림은 애초에 예일대학회화과 교수 윌리엄·베일리가 그렸는데 뉴스위크의 표지로 가판대에 진열되자 갖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불쾌하기보다는 놀라운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뉴스위크 편집국장 레스터·버스타인은 표지의 초상이 『뛰어난 미술평론기사를 한눈에 설명하는 아름다운 회화』라고 말하고 『다르게 보는 관점은 보는이의 눈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뉴스위크지대변인은 표시에 대한 항의전화는 10여통뿐이었다고 밝혔는데 원작가인 베일리는 뉴스위크 표지로 오르는 것이 『예술가의 꿈도 아니며 내뜻은 더욱 아니다』라고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이번 시도가 판로확장을 위한 대담한 시도인가라는 추측도 있는데 이는 『우리는 틀에 박히지 않는다. 우리는 틀을 깨뜨린다』라는 뉴스위크의 광고 주제와 일치하고 있다.

한인천주교회 연례야외 미사

토론토한인천주교회(신부 고종옥)의 연례 야외미사가 오는 20일(일) 상오11시, 작년과 같은 곳인 그린우드·컨서베이션·팍(피커링 북쪽 약 5킬로)에서 열린다.

蘇가 最大무기 輸出國 스웨덴國際平和硏 발표

(스톡홀롬, 스웨덴) 스웨덴에 대한 소련의 침략위협이 최근 줄어들었으며 중공은 작년에 무기생산을 다른나라보다 가장 많이 삭감했다고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가 7일 발표했다.

「바지」등을 TTC에 놓고 내려

승객물건 경매 $6천 수익

장갑 25켤레에 단돈 $28, 선글래스 12개에 $20, 이것은 지난 주말 토론토 명물 CN타워 꼭대기에서 벌어진 TTC(서민교통관리위원회)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들이다.

매년 두번씩 열리는 TTC경매에는 천여명이 참석, 시계 120개, 계산기 15개, 플룻 2개, 카메라, 골프셋트, 망원경등을 사가 TTC는 6천달러의 가외 수익을 올렸다.

이 물건들은 승객들이 버스나 전차, 지하철에 놓고 내린 것중 6개월이상 찾아가지 않은 것들. 물건도 다양해서 스케잇보드, 당구큐2개, 칫솔, 치약, 샴푸를 비롯 어린이 신발, 남자바지, 여자원피스등 가지각색이다.

해마다 이 경매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다는 그레이스·싱여인은 값은 낮지만 경매장소가 너무 높아(1850 Ft) 12상자나 되는 물건을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고.

◆교포디자이너 박숙회양이 주관하는 패션쇼가 지난6일 저녁7시 TALK OF TORONTO식당극장에서 열렸다. 100여명의 캐네디안관중과 일부 교포들도 참석한 이 쇼에는 박양의 작품 10여점이 선보였다. 모델로도 출연한 박양은 "교민들을 위한패션쇼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부동산매매시 법률적 제반문제

경제생활과 우리 ③ III 법률상담편 ＝ 강찬영 변호사 제공

측량도 유무확인해야

부동산업자 구두약속도 효력

가게매매는 부동산업자를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진다.

소매업자가 개입됐을 때는 매매계약서를 부동산회사 직원이 준비한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 소개업자는 절대 변호사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매도인의 대리인이지 매수인을 대표할 수는 없다.

물론 사업체나 건물을 물색할 때 부동산 업자에게 부탁하는 일은 종종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소개업자가 매수인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부동산 업자가 매수인만 보호하지 만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업자가 만든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전 변호사에게 계약내용을 검토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가게나 집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소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이 아닌 말로라도 약속을 하거나 사실이라고 언급(REPRESENT)한 일이 있으면 계약서에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는데 매매가격에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복덕방직원이 매수인에게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만일 냉장고가 없으면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다.

나) 가옥매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옥매매계약서는 가게매매계약서와는 다른 형식을 사용한다.

가옥매매계약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측량도에 관한 조항이다. 보통 인쇄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가 측량도를 가지고 있으면 측량도를 매수인에게 주겠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매도자가 측량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측량도는 집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두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밝혀준다. 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법이나 도시계획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고, 매매되는 집이 옆집 땅을 침범했는지 또는 시의 땅을 침범했는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매수인의 변호사가 집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측량도이다. 간혹 측량도가 없는 경우, 또는 측량도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경우 매수인의 변호사는 측량도 없이는 집에 대한 안전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수인의 변호사가 집에 대한 보증(CERTIFICATION OF TITLE)을 할 때 100%를 보증하지 못하게 된다.

관련된 집이 이미 여러번 매매가 되었던 집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어 대부분의 매수인들은 특별히 $300~$400의 돈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측량도가 없이 집을 매매한다.

그러나 간혹 집을 담보로 은행이나 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융자받을 때는 돈을 대여해주는 금융기관에서 측량도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별 수없이 새 측량도를 마련해야 한다. 측량도는 대개 300~400달러의 비용이 들며 보통 1주일이면 완성이 된다.

매매계약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호에는 교민들의 관심이 큰 「전량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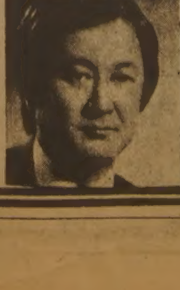
이대환부동산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부동산회사에 맡겨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1)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2)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 10년

*도나스·샵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다운페이 $150,000

*햄버거·샵
(새로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은 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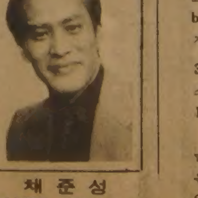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주택·대지·아파트
*가게·상가·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8900 (B)
(416) 6?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들

절호의 기회 : 편하고 쉬운 사업

⊙50% 정도의 높은 이윤
⊙일요일 휴업과 짧은 시간
⊙물건 주문이나 정리가 쉽고 중노동이 없음
⊙상품 가치하락이나 부패가 없음
⊙아이들 손님이 없고 신사숙녀가 고객
⊙최저임금에 고용인 구하기 쉬움

이상의 여러가지 운영상의 장점을 겸비한 이 사업은 통행인이 많은 특수지역에만 있으며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좀 더 편한 사업을 찾으시는 분들께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CARD & GIFT STORES

1. 장소 : BLOOR E & YONGE (북 아메리카에서 제일 통행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중의 하나) 가격 : $159,900. 스탁 : $20,000 영업시간 : 주58시간

2. 장소 : BLOOR W & YONGE 가격 : 69,900 or best offer 스탁 : $20,000 영업시간 : 주54시간 개업2년째이며 매상 상승중 1인 운영가능.

3. 미시사가의 바쁜 쇼핑몰. 가격 : $69,900. 스탁 : $30,000. 영업시간 : 주58 2분의1시간. 1인 운영가능

☆기타 : 외에도 가게·햄버거숍·음식점등등의 많은 사업체와 건물·투자처·주택들의 리스팅들이 있읍니다.

제4회 고교동창 배구대회

일 시 : 1982년6월19일(토)오전9시
장 소 : Boyd Conservation park (입구바로 왼쪽 Poplar Hill) Hwy 7 & 이스링톤(이스링톤 노스로 3km)
시 상 : 1 2 3등및 응원상 (트로피)
규 칙 : 6인제로 하되 9인제 규칙을 적용함.
참가비 : 팀당 $30(참가를 희망하시는 팀은 5월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인규(☎ : 960-5736
신강용(☎ : 251-6578)
※음료수는 주최측에서 제공합니다.

주최 : 서울사대부고동창회
후원 : 토론토한인배구협회
한국일보사, 브랜튼스포츠사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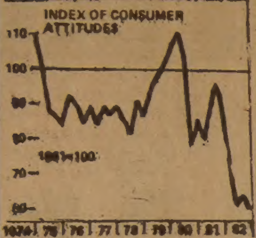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사상 최악의 소비자 성향

경제호전 비관, 소매업자에게 직접타격



"작년부터 밀어닥친 경제불황으로 소비자들은 현금을 꼭 쥐고서 가게 출입을 멀리하고 있다. 도저히 돈을 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분기마다 조사하는 소비자 구매성향이다.

고금리(특히 모게지 재조정시)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자동차, 전기기구, 가구같은 큼직한 물건은 물론 심지어는 식품비 지불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수퍼마켓등 싼 가격을 찾아다닌다.

지난 20년간의 조사중 소비성향이 최하로 내려가고 있는것(도표참조)을 볼때, 소매업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단시일내에 고조될 징조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적어도 수개월간은 이러한 약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동 보고서의 예측이다. 그러나 한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1981년말의 기록보다는 약간의 호전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비성향지수(Consumer-attitudes index)는 전국 1000개 이상의 가정을 상대로 다음 네가지 설문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첫째 가정의 재정현황, 둘째 개인재정상태 전망, 세째 현시점이 큰 구매를 위한 적절한 시기인가의 여부, 끝으로 직장전망에 대한 질문이다.

조사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재정적으로 6개월전보다 자신들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겨우 10.5%만이 가까운 장내에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버웃 아이스크림
리베이트 대폭 인상
14일부터 협회서 접수

협회는 다른 아이스크림회사에 비해 낮은 리베이트가 문제시되던 실버웃 아이스크림(Silverwood Dairies Ltd.)회사와 리베이트 인상협상을 완결했다.

실버웃의 세일즈매니져 어니·도슨(Ernie Dawson)씨는 "지난 10여년간 아이스크림 업계의 피나는 경쟁속에서도 우리는 소매상(retailer)의 리베이트를 15%-16% 선을 고수했다. 그러나 우리 회사 판매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인소매상들의 대표인 실업인협회의 끈질긴 교섭과 설득으로 애당초 예상했던 선 이상으로 양보하지 않을수 없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원활한 유대관계가 실협과 당회사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상내용

●새로운 협약의 발효시기는 6월14일(Period 8)부터이며 지난 period 1-7(81.11.30-82.6.12)분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8월말이전에 완료된다.

●특히 회원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리베이트의 적용혜택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6월26일까지 협회사무실로 신청해야 하며, 실버웃에서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음.

●현재 비회원 한인업소로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6월26일한 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람.

신리베이트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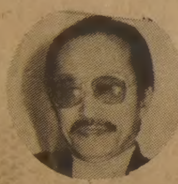
년매상	회사장비	자기소유장비	종전의 리베이트
$ 3.900~5.200	10%	18%	10%
5.200~7.800	18	22	12
7.800~10.000	19	23	15
10.000~12.000	20	24	16
12.000이상	22	25	16

○ 발효시기-1982년6월14일
○ Minimum delivery(최소매입액 1회) - $75.00
○ 대금결제-C.O.D(Charge on Delivery)
○ Rebate지급-예상년매상에 의하여 매 period별로 지급하며, 차액은 년말에 조정함.

상담실 소고(小考)

"응모자가 없어서 1등 합격"

강공선(상담실장)



◆강공선씨

지겹게도 바쁘고 고달프던 가게를 팔아치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계굴지의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밴쿠버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몸시도 피롭히던 꼬마손님들과 실갱이할 필요도 없고, 문밖에 도둑맞은 흔적이 보이는 토론토썬 뭉치를 집어들고 이맛살을 찌푸릴 필요도 없고, 앞뒤로 쳐들어 오는 딜리버리맨들이 속혀 먹지나 않나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없고, 이문도 없이 돈주고 받아 놓은 더러운 빈병들을 축축한 비니루 백에서 꺼내 챙길 필요도 없고, 질질 새는 밀크백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화장실로 달릴 필요도 없고….

아름답지 못했던 지난날만 하나씩 하나씩 연상하면서 자승자박했던 감옥살이에서 해방이나 된듯 이제 골프 클럽 2셋트만 덜렁 싣고 마누라와 함께 기약없는 여행길에 올랐다. 옆좌석에 곤히 잠든 여보의 모습이 가게를 시작하던 8년전보다 확실히 늙어 보였다. 제나 내나 늙은 것은 오직 가게 탓만은 아니련만 왜그런지 돈 몇푼 번 생각은 안나고, 한창 좋은 시절을 허송한 것만 같아 이제라도 잘 결단을 내렸구나 하고 자위해 보았다.

도착한 다음날부터 무슨 원수나 갚는 듯이 거의 매일같이 둘이서 골프장을 가게장사하듯 열심히 휩쓸었다. 40일이 지나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친구가 그리워지고, 주일이면 예배당이 생각나고….

떠날때는 1년이라도 마다할것 같은 기분이더니 그렇게도 아쉬워하던 골프도 역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가운데 틈을 내서 해야 즐거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가게만은 미련이 없었다.

일에서 손을 뗀지 꼭 3개월만에 취직을하기로 결심했다. 토요일에는 내시간을 갖고, 주일에는 교회에 봉사할수 있는 생활을 갖기로 작정했다.

어느날 신문지상에 실업인협회에서 컴플레인(Complaint) 상담을 맡아서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나왔다. 예산이 없어서 파트타임이란다.

Complaint 상담이라, Hot Line 이라 하면, 첫째 골치아프고, 둘째 급하고, 세째 욕먹는 자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말리는 친구가 더 많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첫째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실업인협회"를 항상 장래성 있는 좋은 단체로 생각해 왔었고, 둘째 지난 8년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직접 일선 가게에서 당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협회"라는 힘을 배경으로 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세째 회원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있는 권익을 찾아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면 고맙게 생각해 주실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응모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도 응모자가 나하나 뿐이어서 1등으로 합격하여 3개월 시험기간을 조건으로 2월8일 집무를 시작했다. 이제 사무실도 넓고 깨끗한 곳으로 이사했고, 사무원도 증원하여 차츰 틀이 잡혀가는 가운데, 차선결 회장을 위시한 집행부 임원 여러분, 김태진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의 격려와 지도하에 300여건에 달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차츰 그 유형도 파악이 되고, 문제의 해결방안도 체계가 잡혀가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내가 대하는 한가지 한가지 문제가 곧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에 직결되고, 따라서 협회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이미지 형성에 큰 비률을 차지한다는 생각에서 더 한층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상담실 운영에 관한 소감을 "실협뉴스"에 실었으면 하는 부탁을 진작부터 집행부로 부터 받았으나 좀더 일을 해보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글로 옮기려는 의도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었다.

7-UP 프로모숀
26온스 55센트

7-up의 세일즈매니저 마크·베나디바씨와 마케팅매니저 다빗·아브람씨는 6월7일(월) 협회를 방문, 7-up과 diet 7-up의 판매촉진책을 6월10일부터 3주간 실시한다고전해왔다.

7-up회사는 동기간동안 실협회원에 한해서 Squirt(26 oz)의 "하나 사면 하나 무료(buy one get free)"의 진흥책도 실시하며, 6월말경 7-up 1.5 l에 대한 파격적인 가격과 이윤으로 실협회원 가게에 판매된다고 했다.

<알림>

협회 회계년도가 8월31일로 다가오고 있읍니다. 년도말 결산준비상 회원여러분들의 회비납부가 요망되오니 아직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속히 협회로 납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비 - 년 $50,00
◆Payable to - O.K.B.A.
◆Mail to - O.K.B.A.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 1K8

160돌 기념축제
쎄인·폴성당

오는 12일(토) 토론토한인천주교회(주임 고종욱 신부)가 사용하고 있는 쎄인·폴성당 창설 160돌 기념축제가 83 Power St.(Queen St.East×Parliament 1블럭 동쪽)에서 열린다.(상오10시~밤12시)

백인신자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날 다채로운 기념행사에 교포신자들도 많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바자·게임·노래와 춤(한국춤 포함)·음식·빙고·바베큐·복권추첨·맥주·음료등이다.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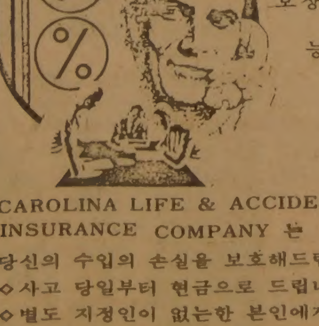
쿠폰써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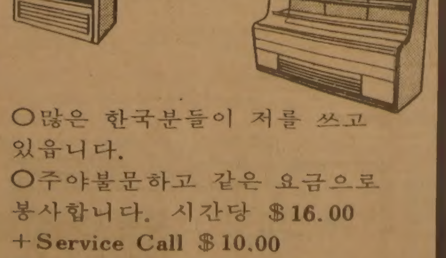
협회가 회원들에게 무료봉사해오고 있는 쿠폰써비스(분류, 현금청구, 발송)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속히 사무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대상쿠폰 : 회원들 스토아에 접수된 Box 2140, Box 3000 전 종류
신청서류 : (1)처음 신청하는 회원
a)쿠폰취급상점 등록신청서 1통 (양식 협회사무실 보관)
b)취급품목이 기재된 인보이스 사본 2통
c)자세한 것은 협회로 문의바람
(2)청구양식을 구비하신 회원은 쿠폰과 함께 협회로 우송

실업인협회 쿠폰담당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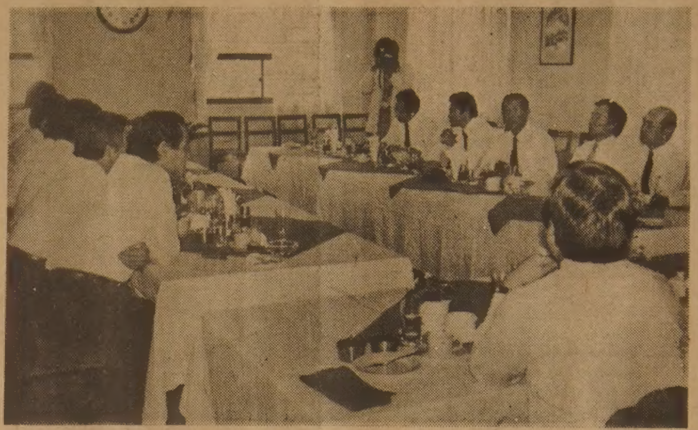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24시간 냉동수리
《STAY KOOL Mechanical Co.》
◇에어콘디션
◇냉동시설
◇히팅시설

○많은 한국분들이 저를 쓰고 있읍니다.
○주야불문하고 같은 요금으로 봉사합니다. 시간당 $16.00 +Service Call $10.00
○갑자기 고장났읍니까?
453-3804
JUNIOR MILLER 또는 AL LOMBARDO를 부르십시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經濟정책 전면改編해야"

民正간부 간담회 總裁에 時局수습방안 건의키로



◇民正간부들의 「時局협의」 ◇5일상오 중앙당사에서 조찬을겸해 열린 民正黨당직자및 국회상임위원장 연석간담회。이자리에서는 이미 제시되어있는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한 時局수습방안과 당운영개선방안등이 광범위하게 토의됐다.

實物경제閣僚·鄭法務 인책 學園사태와 관련 李文敎도

民正黨은 6일상오 중앙당사에서 黨職者·총무단·국회常任위원장 연석간담회를 갖고 지난2일의 의원총회와 4일의 常委別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時局수습방안과 黨운영개선방안을 협의했다. 民正黨은 이날 간담회결과를 종합하여 금주초 이를 黨총재인 全斗煥 대통령에게 건의키로했다.

이날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원들이 黨總과간담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종합분석했는데 ▲劉彰順총리를 비롯한 金埈成부총리·羅雄培재무장관등 實物經濟팀의 교체▲李·張사건에 일관성없는 발표로 국민의 不信과오해를 초래케한 鄭致根법무의 추가引責▲학원사태에 관련한 李奎浩문교장관의 인책▲경제정책의전면개편▲黨운영의 민주적개편과 소속의원들의 적극참여▲정확한민심의소재와 여론을 파악하여 적어도週1회 黨職者들이 黨총재에게 보고▲과감한 景氣활성화대책등 의원들이 그동안 주장한 당면時局收拾과 관련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거론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民正黨은 시국수습을위해 3黨3役회담에이어 사무총장접촉이 추진되고있는만큼 黨과 상임위원장등은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한편 시국수습 못지않게 중소기업을 비롯한 經濟界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있기때문에 黨에서도 長·短期경제대책을 수립, 이를 정부에 제시키로했다.

民正黨은 또 정부는 정부대로, 黨은 黨대로 시국수습대책을 마련중이나 黨이주도적으로 모든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가 끝난뒤 尹淳사무차장은『民正黨은 良心의 所在와 시국의 중대성을 정확히 파악,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차원의 해결책이 나와야한다는것을 알고있다』고 밝히고『그렇기때문에 소속의원 전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黨이 갖고 있는여러자료를 토대로 黨차원의 대책을 세우게될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 송구 不禁 姻戚도 法앞엔 준엄"

全대통령、어음事件에

全斗煥 대통령은 4일『대다수국민들이 성실 근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있는 이때 어음사건이라는 不美스런 일이 일어나 비통한 마음 금할수 없다』고 밝히고『정부책임자로서 국민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저녁 平統창설 1주년을 맞아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청와대綠地園에서 平統정책자문회의의 모범협의회및 有功자문위원등을 위해 만찬을 베푼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그러나이러한 사건들은 정의사회구현과 의식개혁운동의 필요성을 오히려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중단 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건들의 再發과 大型化를 방치하는것과 같은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권력을 빙자한 이런사기사건이 가능할수있었다는것은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될수있다는 舊시대적·사고방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그러한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대통령의 가까운인척이라도 법앞에는 오히려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게된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밝아져서 어두움을 용납치못한다는 긍정적인 증거도 되는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李·張부부사기사건의경우도 우리가 이를 國論분열과 국민不信感 확산의 방향으로 방치한다면 우리가 이사건에서 얻은피해를 더욱더 확산하는것이 될뿐』이라고 말하고『이를 우리의 현위치를 되돌아보고 민주복지사회건설을위한 우리의 각오와 戰列을 재정비하는 새출발의 기회로삼는다면 오히려 轉禍爲福의 계기가 될수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레 大統領 내일 公式訪韓

아프리카 자이레공화국의 모부투·세세·세코 大統領(사진)이 全斗煥 대통령의 초청으로 7일 상오11시 특별기편으로 來韓한다。

모부투 대통령은 訪韓첫날 청와대로 全 대통령을 예방, 양국정상회담을 갖고 최근의 국제정세와 양국의 경제협력증진 방안등 공동의관심사에 관해 협의한다。 모부투 대통령은 3박4일의 滯韓기간동안 농수산물 加工공장 現代造船 浦項製鐵등산업시설을 시찰한다。

모부투 대통령의 이번訪韓에는 부인 보비·라다와여사와 요카외상등 1백46명이 수행한다。

모부투 대통령의 滯韓일정은 다음과같다。

▲7일=金浦공항着·청와대예방·頂上회담

▲8일=국립묘지헌화·서울大명예정치학박사학위수여·경제4단체장오찬·利川농수산물가공공장시찰·청와대 만찬참석

▲9일=現代造船및浦項製鐵시찰

▲10일=기자회견·청와대예방·離韓(상오10시)

經濟難局타개 협의 경제長官·企業人들

9개都市서 간담회

정부는 李·張부부 어음사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협조를 촉구하기위해 오는 7일, 9일, 11일 사흘동안 서울을 비롯, 전국9개도청소재지서 경제부처장관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갖고 경제난국 타개를위한 공통의 이해기반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간담회에는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재무, 농수산, 상공, 동자, 건설, 보사, 노동등 8개경제부처장관과 韓銀총재, 국세청장등이 참석하며 업계측에서는 서울의경우 경제4단체소속기업인 3～4백여명, 지방은 지방상공회의소 관계기업인들이 참석한다。

간담회 일정은 다음과같다。

▲서울=7일상오8시～10시 신라호텔, 부총리를 비롯 8개경제부처장관과 全經聯주관으로 경제4단체 기업인들이 참석。

▲全南北=9일 각지방商議, 부총리 보사장관참석。

▲慶南北=9일 각지방商議, 상공장관 재무장관 참석。

▲忠南北=11일 각지방商議, 농수산장관 건설차관 韓銀총재 참석。

▲京畿·江原=11일 각지방商議, 동자 노동장관 경제기획원차관。

鎭南浦·平壤등 폭동 北送 僑胞들도 가담

【東京4日=聯】북송재일교포가 최근 북한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동에 가담하고있는가하면 일본에의 탈출을 기도하는일이 잇달아 일어나고있다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계 統一日報가 4일 보도했다。

日語로 발행되는 이 신문은 조총련지도층주변의 소식통들이 그러한 사실을 지적 알려줬다고 밝히고 韓德銖조총련의장은 이 때문에 지난달 平壤을 방문했을때 북괴당국으로부터 북송재일교포들에 대한 일본내교양사업미비등을 지적받음과 동시에 심한 문책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일부북송교포들은 북괴의 선박을 빼앗아 일본으로 탈출을 기도하는사례까지 벌어지고있다고 밝히고 최근 東西해안의 某항구에서는 북송교포들이 집단으로 소형어선을 탈취, 탈출을 기도하다 북괴군에 발견돼 해상에서 격침되기도했다고전했다。

이、PLO基地 猛爆

【베이루트4日AP AFP=聯】이스라엘은 4일 런던주재 이스라엘대사의 피격에대한 보복으로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목표물들을 3시간여동안 맹폭, 적어도 4백명의 사상자를 내게했으며 PLO 또한 즉각보복공격에 나서 이스라엘 북부유태인 정착촌에 맹렬한 로키트포공격을 가해 양측간에 포격전이 벌어졌다。

레바논경찰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이날 공습이 팔레스타인 게릴라및 레바논軍·民목표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격중 가장잔인한 것이었다면서 이날공격으로 적어도 60명이 죽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날 베이루트및 남부레바논상공을 저공비행하며 PLO전몰과 PLO게릴라들이 훈련소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축구장에 10여발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어 3개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및 남부레바논 나바티에지역의 팔레스타인게릴라기지들을 맹폭했다。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時局수습과 함께 民主化개혁 推進

民韓, 고위黨職者회의

民韓黨은 5일 與野領袖담 마련을 위한 3黨사무총장 접촉을 앞두고 당내 대책협의키위한 고위당직자모임을 가졌다。

民韓黨은 이날 모임에서『오늘의 難局을 수습키 위해서는 張여인 사건등 현안의 문제에 대한 수습책과 함께 민주화 개혁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앞서의 黨論을 재확인, 이를적극 추진키로 했다。

林鍾基총무는 이자리에서『4일의 3黨3役회의에서도 民韓黨은 이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고 보고했는데『민주화개혁에는 정치被규제자문제, 정치, 언론의 활성화문제와함께 헌법개정문제등이포함돼있다』고 밝혔다。

社会漫評

事故 連發

銀行에 經營委 신설 집행부 專橫 막도록

銀行法개정 내년부터 施行

정부는 은행사고예방시책의 일환으로 은행집행부의전횡을 막기위해 株主, 이익단체(勞組),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으로 경영위원회를 만들어 거액대출을 비롯한 주요 경영정책은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은행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민간인주주의 소유상한선을 제한하고 경영인(중역)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銀行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하고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했다。

5일 재무부는 빈발하는 은행사고와 부실화를 막으려면 은행집행부의 독주를 막을수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小株主 총회형식의 경영위원회를 만들어 은행의 주요경영시책은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할 방침이다。

경영위원회의 구성은 주주, 은행부및 노조대표와변호사, 공인회계사등 10인내외로 구성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처럼 비상설기구로서 필요에따라 수시소집하여 운용하되 경영위원회 권한은 ①거액대출 ②점포설치 ③재산의구입및 처분 ④은행관리기업및투자의 결정등 주요경영정책을 심의 결정토록할 방침이다。

장기신용은행은 이사회와는 별도로 은행장, 전무및 상무3명등 6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두어 상법상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제외한 일상업무를 결정하고있다。

은행법개정안은 또 은행민영화방침에따라 은행이 과거처럼 특정재벌의 私金庫화되지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키로하고 이를위해 동일인 소유한도와 대주주의 투표권을 10%이내로 제한하는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이와아울러 이사급이상의 경영인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제한, 공금융기관, 지방공공단체및 공무원, 그리고 상장기업및 부투자기관에서 일정기간이상 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에한해 임원에 선임할수있도록 규정하기로했다。

空軍參謀總長에 金相台大將임명

정부는 5일 공군참모총장에 金相台공군참모차장을 승진 발령했다。 金총장은 발령과동시에 공군총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이날 상오11시 취임식을 가졌다。

◇약력 ▲경북淸道출신 52세 ▲空士2期 ▲國防大學院卒 ▲서울大경영대학원 수료 ▲戰飛團長 ▲情報·作戰·企劃참모부장 ▲軍需사령관 ▲공군參謀次長 ▲作戰사령관

韓日經協접촉 週末재개될듯

韓日양국은 교착상태에빠진 60억달러 經協문제의돌파구를 찾기위해 빠르면 금주말께부터 실무접촉을 재개할것으로 보이며 6월말이나 7월초 본격적인 외교교섭을 再開하게될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5일『일본의 스즈끼(鈴木)수상이 현재 베르사유 西方선진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고있고 그후 페루와 브라질을 거쳐 이달중순께 귀국할예정인데다 사쿠라우찌(櫻內)외상도 6월하순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방문일정이 잡혀있어 7월께에가서야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것』이라고 전망한후『그러나 외무부와 마에다(前田)駐韓일본대사간의 사전접촉은 6월중순께부터 시작될것으로 내다봤다。

領袖회담 今週末께 3黨3役합의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사무총장·정책의장·원내총무등 3役들은 4일하오 국회에서 회담을갖고 李·張부부사건을 마무리짓기위한 與野領袖회담을 적극추진키로하고 구체적인 日程과 참석범위는 3黨사무총장에게 일임했다。

3黨사무총장은 1～2차례 회담을 갖고 이문제를 논의할예정인데 이에따라 늦어도 今週까지는 領袖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3黨3役은 또 李·張부부사건의 마무리, 경기 활성화대책등 정치발전문제등도 아울러 논의했다。

地平線

일전 일본에서 돌아온 李御寧교수의 소론을 빌면 일본은「縮小志向」의 문화를 지녔다。 일본문화에 일관된 흐름은 넓은데서 좁은 곳으로, 밖에서 안으로, 큰것에서 작은 것으로 수축하는데서 찾을수가 있다。 자연을 축소한 꽃꽂이·일본식정원의 전통은 카메라·트랜지스터·탁상계산기와 소형자동차에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일본의 특장이다。 강점을 살렸을때 일본은 아름다움을 낳고 힘을 얻는다。 반대로, 일본은「擴大志向」일때의「재앙」을 가져온다。 도요도미(豊臣秀吉)의 임진왜란, 8·15패망에 이르는 일본 군국주의…。 이연장선 위에서 그는 일본의 경제적 팽창주의를 본다。 GNP 세계 2위의 경제「大國論」,「전쟁」이라 표현되는 미일 경제마찰등은 일본의 傳統離脫이 빚어 내는「재앙」의 전주곡일수가 있다。

▼지금 일본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공업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었다。 일본상품은 미국 오토바이 시장의 90%, 오디오·라디오 시장의 50%, TV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대신 일본이 미국에서 들여 오는 공산품은 별것이 없다。 굳이 꼽자면 일본시장의 70%를 점유한 면도날 정도。 나치의 괴수 괴링이,「질레트 면도날이나 만드는 나라」로 미국을 낮추어 불렀다던 얘기가 생각난다。

▼분명히 지금의 일본경제는「밖에서 안으로」보다「안에서 밖으로」를 지향한다。 李교수의 경고대로, 그것은「재앙」을 초래하고야 말지 모른다。 일본의 유력지 마이니찌(毎日)도 4일의 워싱턴發기사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각지에 번지고 있는 반일감정이「戰後최악」이란 지적이다。 지난달말 일본 교오도(共同)통신이 인용한 포토맥協會의 여론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난 2년사이「일본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9%줄고,「일본을 싫어한다」는 8%가 늘었다。

▼그래도 위 2가지응답의 비율은「좋아한다」가 75%,「싫어한다」는 20% 선이다。 이에비하면,「좋아한다」에서 한국은 겨우 55%。「過半數」라고는하나, 중공의 66%를 9%나 밑돈다。 일본의 이미지·다운이 黃色人種 모두의 이미지·다운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짐작에서도, 55%는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려운 숫자다。 금방 한미百年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볼 일인것같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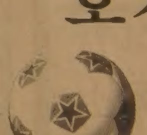
북미서 활약하는 한국축구의 호프

Blizzard PORTLAND TIMBERS

조영증선수 토론토 등장

● 6월16일(수) 밤 8 시
● CNE 스타디움
● 축구협회서 조선수응원진 있음

조영증 환영의 밤
● 16일 CNE서 꽃다발증정
● 경기후 환담과 식사



오시라 !
보시라 !
즐기시라 !
많이 나와 조선수를 응원합시다.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533—2361)
★브랜든스포츠사(598—3732)
★시내 각식품점

—캐나다축구협회· 토론토 한국일보사—

신임空參總長에 계급장

全斗煥 대통령은 5일 상오 청와대에서 金相台신임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및 補職신고를 받고 대장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統一은 우리世代의 課題"

全대통령、平統자문위원에 親書

全斗煥 대통령은 5일『이 싯점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分斷의 현실에대한망각, 고통받는 北韓동포들에대한 망각, 통일의사명에대한 망각』이라고지적, 『우리는 자칫하면 빠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망각현상을 경계하면서 통일에대한의지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의 의장인 全대통령은 이날平統발족1주년을 맞아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親書를통해 이같이강조하고『통일은 우리世代에서 다음세대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겨질과제가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통일이장기간 늦춰지면 민족의 異質化는 더욱 깊어져 통일실현에 더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고 설사통일이 된다해도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게될것』이라고 말하고『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목표를 조국통일에 일치시켜나가야하겠다』고밝혔다。

全대통령은특히『조국통일의역사적과업은 他人의 일이아니라 자신의일로 받아들일때, 그리고 아득한 내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일로 받아들일때 우리는 진정한통일의 主役, 民族史의 주체가 될수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平統 창립1돌

平和統一政策자문회의는 5일 지난해6월5일의 南北韓 당국최고책임자회담제의와 平統창립1주년을 맞아 전국市·郡·區협의회별로 기념식을 갖고 民族和合民主統一방안에 따른 조국통일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임을 재확인하는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平統의 결의문은 또▲北韓측은 부당한구실을내세워 대화를거부하는 분열주의적 자세를고쳐 하루속히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호응,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실천하는 문제를 협의할것을 촉구하고▲北韓은 우리정부의 20개 시범실천사업제의를 조속히 받아들일것▲국민적단합으로 國力을 신장시키고 통일역량을 집결, 사명을다할것등을 촉구하고있다。

세네월드 大將 현충일 메시지

주한유엔군사령관 로버트·W·세네월드대장은 27주년 현충일을맞아 5일 韓國國防관앞으로『침략에 항거하다 희생된 한국군병사들의 방위공헌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메시지를 보냈다。

◇同床異夢 7개국頂上 베르사유 경제정상회담의 7개국정상들。좌로부터 스즈끼·젠꼬(鈴木善幸) 日本수상, 마거리트·대처 英國수상,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 프랑소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 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 지오바니·스파돌리니 이탈리아수상。【베르사유 4日UPI電送=聯合】

駐韓美軍 철수과정서 필수部隊도 빠져나가

美下院 전문위원 蘇극동軍증강、安保위협

【워싱턴4日=聯合】미국이 지난75년이후 한때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한 몇몇 부대들이 철수된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美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의 밴스·힌드먼, 윌리엄·반즈 두 전문위원이 작성 제출한「미국의 對日및 對韓 안보관계」라는 제목의 한 보고서는 미국은 東北아시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지역 다음가는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소련이 동북아시아에 현대무기를 증강 배치하고 전술및 장거리공군력을 현대화하는등 이지역에 대한 군사침공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기때문에 東北아시아지역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정에서 필수부대들이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韓美연합사령부가 미군의 지휘하에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대규모전쟁이 발생할경우 미군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말했다。

英、최종攻擊 임박

스탠리周邊 짙은안개 갤때 기다려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 4日UPI·AP=聯合】포클랜드의수도 포트스탠리를 肉眼으로내려다보는 여러고지에 포진한 영국군은 4일 마거리트·대처수상이 명령한 최종공격을 개시하기위해 안개가 걷히기만을 기다리고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과 신문들은 아르헨티나가 포트스탠리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시인하면서도 전쟁이 포트스탠리에서 끝나지 않을것이라고선언, 장기전에 대비중인것으로보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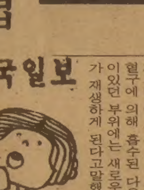
영국종군기자들은 기동함대사령관이『준비를 갖추는 즉시』포트스탠리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개시해도좋다는 재량권을 부여받고있으며 공격개시를 위해 視界2백m만을 기다리고있다고 말했다。

국방성은 지난주말이래 전황에관해거의아무런발표도내놓지않았으나소식통은영국군의최종공격이48시간내에시작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획기적 肝癌치료법 日나고야醫大 개발

【東京5日=聯合】암세포로통하는 혈관을 스펀지와 같은 지혈제로 막은 다음 영양과 산소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간암을 치료하는 획기적인방법이 개발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일본 나고야(名古屋) 대학 의학부가 5일 발표했다。

나고야대학의학부는 암이 분열, 증식하기 때문에 영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착안, 이같은 암의 영양보급로 차단을 통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스펀지와 같은 지혈제와 制癌劑를 암세포로 통하는동맥속에 주입하면 영양부족이 된 암은 지혈제주입 1주일 경부터 중심부로부터 썩어죽게되며 이 죽은 암세포가 백혈구에 의해 흡수된 다음 암이있던 부위에는 새로운세포가 재생하게 된다고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北傀、南侵모험 유혹

향후 4~5年이 고비 美紙

【워싱턴4日=聯合】한반도정세는 현재의 사태발전에 비추어 앞으로 매우 중대한 4~5년간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대한기간이 될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紙가 미국의 한외교분석가의말을 인용,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합동군사작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북한은 그들의 전략적 우위의 정치적인 상실에 직면, 점차 군사행동의 유혹을 받게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레이시·달비도 포스트紙기사에서 북한이 요새화하고 비무장지대 부근에 그리고 다른 군사시설을 전진배치한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현재 10만명으로 구성된 북한특수부대가 60년대말이래 약10배로 증강됐으며 이들은 한국중부산악지대에 대한 공격간헐에 필요한 기습전술을 훈련받고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10년사이에 북한병력이 80만명으로 배증됐으나 한국군병력은 3만9천명의 주한미군을포함 60만명이 약간 못된다고 말했다。

金相台 空參總長

「인물」 「작은거인」… 美軍에도 인기

空士2기로 혼자남아 요직을 두루 거치다 1기출신 두선배(尹子重·李喜根)將。 무스탕(F51)에서 최신예 F15까지 다양한 전투기의 조종경험을 갖고있으며 비행기록도3천시간。 키가작아(1m65cm)「작은거인」이란 별명을 가진 金총장은 미공군장성들에도 인기가있는데 작전사령관시절 주한미공군사령관과 물구나무시합을 벌여이겼다는 일화도 있다。 80년6월 瑞山앞바다에 나타난 무장간첩선을 해군과합동작전으로 격침시키고 해상공을 침범한 북괴미그기를 끝까지 추격했던 勇將。 작전사령관으로있던 80년 대장)에이어 총장자리에 올랐다。 많이 따르는 그는 가톨릭 신자。 金知恩여사(50)와의 사이에 1남1녀。

아침에

「參與의 名分」

무너져가는 「合意」를 살려야한다

鄭宗植 〈本社논설위원〉

며칠전 우리는 國會에서 어울사기사건을 놓고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토론이 전개되던것을보았다。 국회속 여야의원들의 질의는 자못 침통한것이었다。 물론 개운하게 閉會전에 매듭을 짓지 못한것이 아쉽긴해도 與·野 각자의 立場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한듯하였다。

『農民이 농사자금10만원을 農協에서 빌려해도 다섯번정도 다녀와야 하는데 어떻게 몇백억원의 돈이 단몇시간에 대출될수 있는가?』

별로 억양이 높지않은 어느野黨의원의 이질문은 아직도 우리의 귀에 남아있다。

政府측에서는 李·張부부가 저지른 그「罪」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섬의젓 사후대책을 국회에 제시하였다고 하겠으나「罪」보다「사람」을 지나치게 들추어든 는이로하여금 오히려 민망하게만들기도하였다。 한少年이 저지른 죄가 지금도 일이 생기면 들추어질수있다는 이 행하,사면이다 복권이다, 혹은「교도」니「재생」이니 하는 말이 무색해지는것이 아닌지。 모두가 돌을 던질지라도 지금은 돌을 던져서 안될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李·張부부에 대해서는 여부가 없겠지。 그러나 이번일이 李·張두부부가 이웃하고있는 우리사회 내에서 일어났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죄는 흉미의 대상은 아니다…』유일한 倫理란 어떤 사람도 자기속에 감추어져 가장 위대한 것으로 向하게 하는 윤리이다。 인간은 죄를 짓기위해 만들어진것은 아니다』프랑스의 드골이 서거하기 얼마전 앙드레·말로와 마주앉아 세상일과 프랑스와 그리고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 때 사람들은 추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회 개회기간중 野圈一角에서 예전에없이 심각한 自省論이 고개를 드는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이처럼 社會倫理가 흔들리고 政治하는 名分이 손괴를 받았는데 서럽어 놓은 한 마디다。

이번 事件은 물론 李·張두부부의 한없는 불욕과 그에 휘말려든 무리들, 金力과 權力앞에 주눅이 드는 사람들, 그리고 制度上의 많은 결함이 主因이되어 일어난 것이다。 다만 이들 主因의 어느 한 부분을 부질없이 강조하여 세상은 눈치를 채고 다시 긴장하게 된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해서 안되는데도 이런 평범한 상식이 흔들리게 될 이런 상황속에 그대로 몸을 담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발설이 있었던 民韓黨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에 「참여」를 하고있다。 참여한지 오래이다。 그래서 參與속에 이그러진 우리의 狀況을 바르게 잡도록 애쓰리라 고 局外者들은 보아왔었다。 그것이 「參與의 名分」이 아니었던가 싶다。

羅末에 崔致遠이 世上을 등지고 山寺에 들어간일이 있다。 그리고 史草에는 고려때 江左7賢이 역시 세상을 마다하고 들어 앉아 淸談으로 평생을 보낸일이 있다고 전한다。 參與의 거부에 대한한 예가 될것이다。 그러나 崔致遠은 山寺에서도 나라일을 잊지않았음을 전하는 여러문헌들을 남겼다。

張여인사건과같은 한심스런 작태가 우리사회에서 찾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현실에 실나마 회의를 품었던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참여의 명분에 잠시 한 협오를 모두가 느꼈을것이다。 밥을 어떤 배신감도 일것이다。 밥을 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은 할말이 없다。 커다란 실망만 이 남게 될지도 모른다。 때로는 증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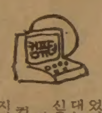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대로 눈감고 내일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여기서 도주라도 하는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될까? 이 현실과 우리社會를 버린다고 버려질수 있을까? 『뭐든 값진일은 아무것도없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뭐든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것은 어떻게 돼도 좋다』고 한 니체와 같은 심경에 빠져있을 수 만은 없는것이다。

野黨이 「참여」의 명분에 잠시나마 회의를 품었던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우리의 歷史는 모두가 共有해 왔고 앞으로도 共有해 가야 한다。 社會에 생겨난 아픔—이것도 우리 모두가 共有해 나가면서 歷史의 앞길을 더욱 원하게 밝혀야하는것이 아닐까。 野黨은 參與를 재고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參與하기어려운 疎外된 사람에게 參與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옳을것 같다。 지금 우리社會가 참여하면서 새로이 가치를 해가야 할것같다。

會에서는 종래의 「合意」가 무너져 가고 있다。 모두가 參與하고 努力하여 좋은 社會를 이루고 하던 合意를 되살려야 한다。 앞서 들은 드골장군이 프랑스 국민에게 「농…」이라는 대답을 받고 물러났을때 그 드골의 悲劇을 프랑스에서는 「合意」가 결여된 시대에 프랑스를 젊어지게 했기 때문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良知와 良心을 지니고 새로운 민족의 숲속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사명을 깨워 우리의 歷程을 함께가는 새로운 合意를 이루어야 할때다。 위대한 民族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神話가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희망으로…。

메아리

컴퓨터 敎育



컴퓨터는 2차대전이후 새로운 산업혁명의 선도역을 맡고 나섰다。 세계최초의 전자계산기가 1946년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펜실베이니아대학 에커트2세와 모클리가 개발한것이 컴퓨터의 원조로 되었다。 그후 30여년간 컴퓨터는 현대의 정보혁명을 일으켜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지난30여년사이 컴퓨터산업이 섬유산업을 자동차분야에서 엄청난 싼값으로 제작되었고 적은 면적으로 엄청난 거리를 달릴 수 있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올 정도다。

1967년우리나라 처음으로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어 인구센서스에 활용할때만도 이기계는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이젠 우리생활구석에 파고들어 컴퓨터는 완전히 생활도구화하다시피 됐다。 교통통제시스팀, 은행 온라인업무, 진료, 입시채점, 전기·전화요금계산, 세금매기기까지 그처리를 맡기고있다。 과연 컴퓨터는 인간을 지배할 단계에 와있는것일까。 인간이 만든 이 기계가 만능일수는 없다。 그동안 전화도수료시비, 입시채점에 대한 회의등 가끔 말썽을 빚기도 했다。

컴퓨터는 기계다。 인간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며 오류가 생기면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프로그램에 잘못이 있거나 조작이 서투르면 기계는 「헛소리」를 할수밖에 없다。 사람과 컴퓨터가 맞서 체스(서양장기)를 두어 사람의두뇌가 이긴일도있다。 기계의 지배자는 여전히 인간임이 기쁘다。

현대는 기술경쟁의 시대다。 지난 4일 열렸던 기술진흥확대회의선 기술과 품질혁신이 강조되었다。 저임금으로 재미보던 시대는 분명히 지났다。 기술혁신은 기술人力을 필요로한다。 이런 절박한 기술혁명시대에 컴퓨터교육이 코끼리 다리만 갉다。 사설학원엔 기재가 없고 이론만 앵무새처럼 가르친다니 어이 없는 노릇이다(한국일보 5월자11면)。 현미경도 없이 생물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일본이 전후 기적의 부흥을 할수있었던 원동력은 평균 9년이상의 현장경험을 가진 기능·기술자가 1백80만명이나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앞으로 4년뒤엔 컴퓨터종사자의 인력수요가 4~5배로 늘어날것이라니 교육의 낙후성을 벗어날 대책이 시급하다。

外信안테나

◆英, 세계7위 產油國부상 ‖영국은 北海유전의 석유생산량이 하루 2백만배럴을 돌파함으로써 소련·미국·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등에 이어 세계제7위의 산유국으로 부상했다고 니겔·로슨 영국에너지상이 3일 말했다。

◆이라크에 전쟁賠償요구 ‖알리·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은 4일 20개월 지속돼온 이란·이라크戰을 종식하는 대가로 1천5백억달러의 전쟁배상금을 요구했다。 하메네이 대통령은 이날테헤란대학교내에서 행한 연설을통해 처음으로이같은 배상금액수를 밝히고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권력에서 축출돼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이란측요구를 되풀이했다。【베이루트=UPI】

◆美, 日市場 개방않으면 報復‖파리를 방문중인 레이건美 대통령은 베르사유서방경제정상회담 개최에앞서 4일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과 회담을 갖고 일본이 앞으로 보호무역정책을 더욱 완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파리=UPI】

영국의 석유생산량은 현재 중동의 이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있다。【런던=路透】

海外토픽

밀수議員 26명檢擧

★멕시코稅關員 압력 불구 ‖미국으로부터 전축·컬러TV등 전자제품을 3백개의 옷가방과 궤짝에 담아 밀수하려던 멕시코국회의원 26명이 이곳 공항 세관원들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서 열렸던 美·멕시코국회의원 교류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것。

세관원에 따르면 26명중 한사람인 물레오스·코네스코상원의원이 소동을 목격한 세관원장에게 손대지말라고 세관책임자에게 호통을 쳤지만 그는 눈썹도 까딱않는다는 물건들은 압류했는데 이 세관책임자는 내달 있을 멕시코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미겔·데·라·마드리드의 친척이라고。【멕시코시티=UPI】

소피아·로렌 어제 早期석방

★收監17일…警察車에스코트 ‖탈세로 이탈리아의 여자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 소피아·로렌(47)이 5일상오감옥생활 17일만에 석방됐다。

베이지색 바지와 저지스웨터를입고 화려한 스커프를 두른 로렌은 경찰차4대의에스코트를 받으며 은색벤츠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교도소를 떠났다。

원래 로렌은 30일간의 복역을 언도받았으나 여자형무소 담당판사인 신지아·시모네 판사에 의해 조기석방이 결정됐다。

로렌의 변호사는 로렌이 석방된뒤 맨먼저 할일은 로마에살고있는 어머니를 방문하는것 이라고 밝혔다。【AP聯合=特約】

李雄熙씨 文化放送 社長선임 임시株總

주식회사 文化放送은 5일 상오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李雄熙前청와대 대변인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金鍾哲 국민黨총재 日程당겨 8일歸國

訪美중인 金鍾哲국민당총재는 당초일정보다 10여일앞당겨 8일상오 귀국할예정이라고 李東鎭총무가 5일밝혔다。

콜롬비아 上院의장 차디드氏、내일來韓

콜롬비아上院의장과 빌리스·구스타보·다헤르·차디드네덴 濠州하원의장이 각각오는 7일과 9일 來韓한다。

李梓昇기자 歸社

본사 李梓昇기자(특집부장대우)가 5일하오 2년간의 미국연수를 마치고 귀사했다。 한국일보사 百想 해외장학금을받아 미국테네시州 밴더빌트대학에 유학한 李기자는 경제학석사학위를 획득했다。

◆85년이전 日에 强震예고 ‖1985년이전에 리히터 지진계로 강도 6·5를 기록하는 대지진이 일본의인구조밀지역인 도오꾜, 요꼬하마(橫濱) 산업지대를 강타할지도 모른다고。

◆워싱턴·타임즈紙창간호 ‖文鮮明목사의 統一敎가 지원하는 워싱턴·타임즈紙가 17일 창간호를 발간한다。

이로써 이신문은 작년8월 재정난으로 워싱턴·스타지가 폐간된이래, 이곳의 유일한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와 경쟁할것으로 보인다。【워싱턴=AP】

政局往來

◆임시적 미봉책은 쓸수없지않느냐 ‖이날 常委원장들은 주요 인물들 興論을 위해 4일상오 民正黨중앙당사에서 열린 常任위원회의 黨務회의에 서는 전반의 뜨거웠던 이 常委別 간담회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常委別간담회과 經過 政策 상태로 상..."

[illegible]

"高位層에 보고할때 直言들이 屈折되지는 않을것"

[illegible]

◆정부공무원 각常任委 배치계획 ‖국회는 각상임위의 立法활동보조를 위해 5級이상 공무원을 정부각부처에서 11개 상임위에 배치하며 7명 5일현재 국회사무처에 10명이 근무하고있다。

◆李範錫외무、週末이용업무보고받아 ‖李範錫외무장관은 취임후 줄곧 일정한 局長들의 부처 業務보고를 받는것이 ...

[illegible]

공 고

금번 한인회에서는 교민 체력향상을 위해 한인친선야구대회를 아래와 같이개최합니다.

일 시 : 7월31일(토) 오전 8시30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 야구장
참가비 : 팀당 $60(주장회의때 까지 납부)
종 목 : O.B. 팀 (전원이 30세 이상으로 구성)
대표팀 (중복출전 불가)
주장회의 : 7월23일(금) 오후 7시30분 한인회관
시 상 : ○. 대표팀 1, 2, 3등
최우수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 O.B. 팀 1, 2등, 최우수선수상, 미기상, 감투상

연락처 : 하주용 ☎ : 769－5956 박재선 ☎ : 755－6434 브랜든운동구 ☎ : 598－3732
대회장 : 박인순, 고문 : 김문량, 진행위원장 : 박재선
심판위원(무순) : 정세용, 조동식, 박세영, 윤호영, 장인태, 최광춘, 박재선, 조용덕
찬조금 명단 : 백이삼 $100 서춘원 $100 이희용 $100 서동원 $50
이인모 $50 호세환 $50 표봉길 $50 조규혁 $50 윤홍타 $50

주 최 : 토론토한인회체육부
후 원 :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한국일보 특집판

「건강한社會」환영론과 「다른스포츠萎縮」경계론사이…

總點檢…프로野球시대

取材팀

◇체육부 安李燦 차장대우, 閔炳宅 기자, 方錫崎 〃, 金仁奎 〃

◇경제부 金基灵 차장대우, 兪晴錫 기자, 朴灵鎭 〃

◇寫眞部 鄭在斗 기자

◇LA支社 盧福煥 기자

◇문제점불구 순조로운 航海 6월2일 서울운동장서 펼쳐진 靑龍—롯데 야간경기。출범 2개월 10일의 프로야구는 기대감과 함께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했으나 예상했던것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鄭在斗기자찍음】

프로야구 출범 2개월 10일。지난 3월 27일 MBC靑龍—三星라이온즈 개막전으로 막을 올린 프로야구는 이제 서서히 자리를 굳혀가고있다。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예상 보다는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고있다。오는 27일 끝나는 전기시즌우승은 어디로갈까。전기시즌을 장식한 스타의 얼굴들과 함께 한국프로야구 2개월 10일을 紙上 진단한다。【편집자註】

出帆 71일의 虛實

첫발은 成功的

프로야구의첫출발은 성공적이었다。5월말까지 2개월동안 82게임의 동원유료관중은 62만69명。입장수입은 9억4천3백74만7천6백50원。게임당 평균 입장객 7천5백61명, 입장수입 1천1백50만9천1백17원의 실적을 올렸다。하루 평균 3구장에서 2만2천6백83명의 유료관중, 3천4백52만7천3백51원의 입장수입을 올린 셈이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가 세운 금년목표는 총2백40게임에 유료관중 1백46만6천5백명, 입장수입 33억4천6백만원。KBO는 현재의 실적이 관중동원면에서는 약25%의 증가를 보여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면에서는 예상보다 약17%감소라고 밝혔다。어린이회원들에 대한 우대가 그 원인。그러나 장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나쁠게 없다。李容一사무총장은 올스타·게임이나 결승시리즈등 특별경기를 통해 입장수입목표를 달성할수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국내경기침체에 아랑곳없이 열풍을 몰고온 프로야구의 마력은 무엇때문일까。10억에서 15억원에 이르는 각구단들의 출혈투자, KBO의 계획, 정책적인 지원, 매스컴의 홍보가 프로야구흥행의 요인들로 지적된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美·日을 통해 이루어지고있는 우리사회의 문화수입의 대표적인 패턴으로서 프로야구가 일반대중에 파고들고있는 사실이다。

稅制지원도 검토

美·日의 문화발전을 답습해온 프로야구지향적인 감각에 의해 국내프로야구가 출범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의 귀는 張勳, 白仁天, 나가시마(長島), 에가와(江川)에 길들어졌다。베이브·루드, 죠·디마지오, 행크·아론, 피트·로즈역시 귀에 설지않았다。스포츠·웨어의 유행에 때맞추어 베이스·볼·모드가 청소년들을 매료시키고있다。

프로야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놀랄만한것이다。자의든 타의든 돈을 벌기위해 뛰어든 투자가(구단)들을 위해 공공시설인 구장사용료가 3년간 완전면제된다。전력난으로 국제대회에 한해 허용되던 야간경기도 프로야구에 대해서는 용인되고있다。이미 서울서는 야간경기가 열리고있으며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야간경기가 벌어진다。선수들에게 소득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병역에 대한 특혜도 고려되고 있다。

주중·주말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3구장서 벌이는 경기운영방식도 팬들의 사정을 감안한 성공적인 기획이다。李容一사무총장은 『프로야구 호기심에 의한 관중입장은 4·5월로 끝났다。우리 야구는 慶南·北지역으로는 20~30년, 호남지역으로는 10년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설된 것』이라며 밝은 장래를 바라보고 있다。그는 또 지방경기시설의 확충, 은행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예매방법개선등으로 입장수입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낙관한다。이런 계획대로라면 2~3년내에는 창설당시의 적자를 벗어나 프로야구는 탄탄대로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야구는 6개팀이 흑자선에 오를때까지 각 구단별경비를 제외한 KBO의 운영경비를 공동부담하고 수입총액을 6개구단이 균일하게 배분하는 공동채산제를 채택하고있다。82년 KBO의 운영예산은 약8억6천만원。6개구단은 이 예산을 공동부담하며 3월수입을 약 2천4백만원씩, 4월수입을 약5천6백만원씩 균등 분배했다。각 구단의 구장별 수입이 본궤도에 오르면 개별채산제로 운영방식이 바뀌게 된다。6개팀중 일부에서는 현재의 운영방식, KBO의 홍보활동에 적지않은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意識프로化 중요

선수들의 기량, 감독들의 역량에 대해 대다수의 야구팬들은 아직 프로로서 미흡한단계라고 지적한다。실업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프로유니폼을 입혔을 뿐이라고 혹평하기도한다。프로선수·감독을 선진외국에서 수입하지 않는한 그들의 기량이 하루아침에 달라질수는 없다。

문제는 프로야구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절대 모자란다는데 있다。고교·대학·실업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하던 무명선수들이 프로로서 어려운 길을 걷고있는 것이다。선두 OB의 승률 7할5푼, 최하위 三美의 승률2할5푼의 엄청난 격차, 게임당 평균 3개의 실책, 이러한 기록들이 설익은 실태를 증명하고 있다。그러나 프로라는 새로운 의식으로 선수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있다。눈앞에 펼쳐진 생존경쟁에서 살아나기위해 선수들은 있는 힘을 다해 때리고 던지고 달려 그라운드에 예기치않았던 드라마들을 연출해낸다。

입장권을 사기위해 1백m이상의 긴 줄을 이룬 야구팬들。이들에게서 프로야구에 대한 열의를 보게된다。때때로 소수관중들의 무질서와 횡포가 전체 야구팬들의 이미지를 더럽히고있다。모지방구장에서는 승리한 MBC 靑龍의 버스가, 大邱홈구장에서는 연패당한 三星 라이온즈의 버스가 돌세례를 받았고 이후 구장마다 버스경비가 강화됐다。구단들은 경기중 선수들의 부상에 관중석에서 날아드는 빈병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위해 전전긍긍하고있다。프로야구는 선수와 팬들이 함께 노력해야 생활의 청량제로 우리사회에 자리잡을수 있는 것이다。【方錫崎기자】

82게임 62萬관중…入場料 9억
아마 技倆에 프로유니폼 입혀
청소년팬 熱狂…夜間경기허용으로 상승무드

◇전기리그 중간전적 <4일현재>

팀	O B	삼 성	MBC	해 태	롯 데	삼 미	승	패	승률	차
①O B	■	×○×○×○○	○×○×○	○○○	×○○×○○	○○○○○○○	21	7	·750	—
②삼 성	○×○×○××	■	×○○×○○○	○○○×○○×	○×○×○	×○○○×	19	12	·613	3·5
③MBC	×○×○×	○××○×××	■	×××○○○○×	××○○○○	○○○	15	14	·517	3·0
④해 태	×××	×××○××○	○○○×××××○	■	×○○○	○○×○○○	14	14	·500	0·5
⑤롯 데	○××○××	×○×○×	○○××××	○×××	■	○×××○○×	10	18	·357	4·0
⑥삼 미	×××××××	○×××○	×××	××○×××	×○○○××○	■	7	21	·250	3·0

◇홈런10傑

①金宇烈	(O)	10
②白仁天	(M)	7
②金城漢	(해)	7
④金奉淵	(해)	6
④金準桓	(해)	6
④金用熙	(L)	6
⑦李萬洙	(星)	5
⑦咸學洙	(星)	5
⑦柳承安	(M)	5

◇타격 10傑

이름		타수	안타	타율
①白仁天	(M)	87	36	·414
②金奉淵	(해)	75	31	·413
③李鍾道	(M)	108	42	·389
④尹東均	(O)	108	41	·380
⑤金容哲	(L)	81	29	·358
⑥申慶植	(O)	114	40	·351
⑦金用熙	(L)	99	33	·333
⑧吳大錫	(星)	91	30	·330
⑧金慶男	(美)	88	29	·330
⑩具千書	(O)	76	25	·329

◇구장별 입장수입 (5월30일현재)

구장	게임	관중	수입
서울	17	168,810	322,268,920
부산	14	112,977	168,416,160
대구	18	169,173	228,925,130
광주	10	61,688	79,025,460
전주	5	40,897	51,216,370
대전	4	26,302	41,186,730
청주	6	22,983	31,768,310
춘천	8	17,239	20,940,570
계	82	620,069	943,747,650

◇타점10傑

①金城漢	(해)	28
②金宇烈	(O)	26
②金用熙	(L)	26
④咸學洙	(星)	24
⑤白仁天	(M)	23
⑤李鍾道	(M)	23
⑦權斗祚	(L)	22
⑧申慶植	(O)	21
⑨李萬洙	(星)	19
⑩楊世鍾	(O)	17

◇도루10傑

①趙興雲	(美)	21
②金一權	(해)	17
③車榮華	(해)	16
④張泰洙	(星)	12
⑤許圭沃	(星)	10
⑥金宇根	(해)	9
⑥金貞洙	(L)	9
⑧宋榮雲	(M)	8
⑧金仁植	(M)	8
⑩金城漢	(해)	7

◇승리투수 10傑

이름	승	패	게임	회	자책	방어율
①朴哲淳(O)	13	2	18	122	22	1·62
②權永浩(星)	8	2	17	91	22	2·17
③金城漢(해)	7	3	19	73	23	2·84
④朴相悅(O)	5	2	11	46	21	4·11
⑤鄭淳明(M)	5	3	15	68	28	3·71
⑥黃圭奉(星)	5	7	18	94	40	3·83
⑦盧相守(L)	5	8	15	104	31	2·68
⑧河基龍(M)	4	5	15	72	21	2·63
⑨金勇男(해)	4	6	16	79	29	3·30
⑩千昌浩(L)	4	6	15	78	31	3·58

「9개년」기간중 外國선수도 스카웃
88년엔 10개팀 東西양리그로 나눠

未來는 밝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젊은이들에게 정열과 투지를, 국민들에겐 건전한 여가선용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프로야구가 出帆한지 벌써 두달이 넘었다。아직 성패를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관중동원에서 당초 예상보다 25%증가를 보여 일단 靑信號로 보여진다。

한국야구위원회는 프로야구육성을 위해 3단계 9개년계획을 세우고있다。1차 3개년 창립기에는 6개구단이 年間80경기로 시작, 마지막 年度인 84年엔 年間1백30게임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이 기간동안은 6개구단이 共同採算制를 실시하며 선수도 지역연고제에 의해 국내선수만으로 전 경기를 치르도록되어있다。

2차 3개년(85~87년) 成長期에는 팀수를 6개구단에서 8개구단사이로 하고 재일동포선수에 한해 팀當 3명씩을 스카우트할수 있도록했다。또 共同採算制가 끝나는 87년부터는 선수스카우트도 지역연고제를 따르지 않고 드래프트方式을 따르며 선수의 계약금및 연봉도 上下限을 두지 않고 球團재량에 맡기게 되어있다。

마지막 安定期 3차 3개년계획 기간(88~90년)에는 球團數를 10팀으로 늘리며 5팀씩 東·西리그로 갈라 美·日의 프로야구와 같은 兩리그제를 채택토록 되어 있다。이 기간에는 外國國籍을 가진 선수를 팀당2명씩 허용하며 각구단은 자동적으로 2軍팀을 가지게 된다。

또 이때쯤이면 현재 어린이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국민학생층이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社會初年兵이 되는 때여서 고정팬확보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수 있을것으로 예측된다。

프로·스포츠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다。노력과 능력에 따라 선수들은 富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수 있으며 『正當한 노력이 正當히 평가되는 곳』이 바로 프로스포츠市場이기 때문이다。

球團경영은 단순한 入場收入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상품판매, 母企業商品市場의 확대, 球場內 각종 판매수입(外國의 경우 駐車料도 포함)등 부수효과가 큰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가 共同채산제를 채택하는 向後 5年동안 가장 力點을 두는것은 팬확보와 自體球場확보, 그리고 프로스포츠의 生活化이다。

시민들에게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를 제공하며 신나는 週末을 마련하자는 것이 프로야구 궁극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입장료 3백원의 어린이 회원 14~15만명을 확보한것은 10년뒤를 내다본 布石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프로스포츠觀戰을 생활화시키자는 뜻이다。올해 後期부터 실시할 예정인 여성팬클럽(女中·女高·女大生대상) 조직은 미래의 主婦, 미래의 어머니들에게 觀戰의 맛을 익혀줌으로써 5년뒤, 10년뒤의 球場을 가족단위관중으로 채우려는 욕심이다。

또 프로스포츠의 活性化는 필수적으로 아마스포츠의 발전을가져온다。창립당시 1~3년은 프로와 아마의 갈등이 없을수없으나 보다 巨視的 안목에서보면 프로와 아마는 영원한 同業者다。아마없는 프로가 있을수없기 때문이다。6개구단이 해당지역의 국민학교, 중·고교야구팀을 적극 지원키로 한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저녁이면 시원한 야간조명아래서 온가족이 프로야구를 즐기는국민, 그런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가꾸어나가자는게 프로야구出帆의 큰 뜻이라할수있다。

金昌雄 【KBO홍보실장】

KIM'S 미용실

여름철 특별봉사

남녀파마, 스타일 ($25&Up)

웨딩드레스 대여
신부화장 전문

Kim's 미용실
668 Manning Ave.
(B)532-7094 (R)438-0628
Mrs.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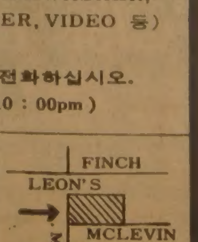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HOLE SALER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BRUNSWICK SINCE 1845

THE PERFECT GIFT
〈가족전체가 즐기는〉

$ 422.00

◎가정에서 남녀노소 즐길수 있는 당구게임.
◎일단 방문해주십시오.
◎모든종류의 당구대를 주문 할 수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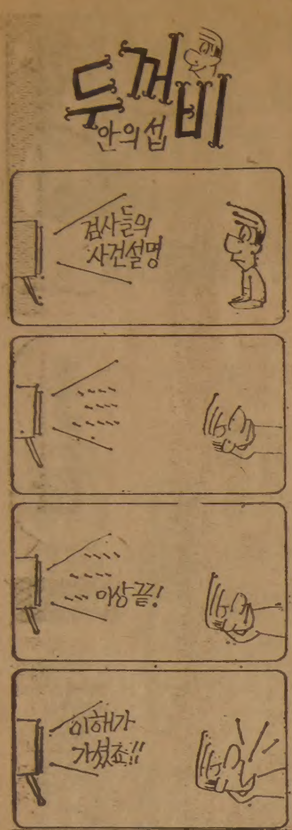
HOME BILLIARD SALES
SERVICE & REPAIRS
5170 DIXIE RD. MISSI.ONT.
(딕시×401 SOUTH) ☎ 625-2691

바로잡습니다

6월9일자(수) 토론토피아노 아카데미의 "학생리사이틀"은 날짜가 7월27일이 아니고, 6월 27일이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CLASSIFIED) : 박경옥
533-2361



私債업자 10여명 "27億 포기"

金常起씨사건 架空人物 수십명, 通帳만 1백개

은행돈을 빼돌리고 자살한 金常起씨 (38·前朝興銀明洞지점차장)가 예금유용을위해 발행했던 86억4천만원어치의 예금통장중에서 예금청구권이 포기된 상태에있는27억원의 예금주인은 金씨소유였던 元振그룹의 명예회장金규배씨(60)를 비롯, 元振과 관계를 갖고있는 10명이내의 私債업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朝興은행관계자들은 5일 金씨가 자살한직후 金규배씨등 元振관계인들이 수십명의 가공인물명의로 된 예금통장 1백여개를 은행에 제시, 도합32억원의 예금을 지급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은행측이 몇가지 명백한 증거를대면서 ①이들과 金常起씨와의 관련성및 공모가능성여부 ②입금도 안된 허위예금통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한결과 5억원만 정당한 예금으로 인정해서 찾기로하고 나머지 27억원은 예금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던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예금청구포기에 따라 은행측은 27억원어치의 예금통장과 예금증서를 이미회수했다. 이들이 제시한 27억원의 예금통장은 대부분 입금도 안된 허위통장, 기간만료된 통장, 중도 해약된 통장등이 있으며 은행에 원장이나 입금전표등도 없는 것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억원 통장의 실제주인들도 金常起씨의 친척과 친지및 金씨 소유였던 元振그룹 관계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은 3일전인 지난2일 검사부장을경질, 은행돈유용실태와 金씨관계인들의 공모가능성 여부에대해 정밀한 재조사를하고 있으며 공모관련인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방침이다.

27억원을 포기한 큰손이 金常起씨의 수양아버지 崔모씨라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은행관계자들이 밝혔으며, 金규배씨와 金常起씨와의 절친한 관계가 잘못 와전된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흥은행은 86억4천만원의 유용액중 27억원을제외한 나머지 59억4천만원은 소유주가 누구이건 무조건지급해주고 있으며 이중45억원은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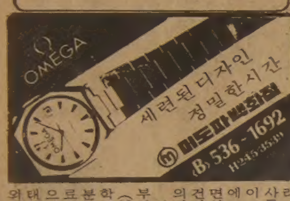
◇현충일을 하루앞둔 5일 서울銅雀洞 국립묘지에는 많은 전몰장병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했다.

오늘 顯忠日 10시 1분간默念 護國英靈넋 위로

6일은 27번째맞는현충일.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곳곳에서는 호국영령의 넋을위로하는 추념식이 거행된다.

서울에서는 상오10시 銅雀洞국립묘지에서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대표,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갖는다.

이날 상오10시 1분동안온 국민이 동시에 묵념을올리며 이때 사이렌소리를신호로 열차를제외한 모든차량은 정지토록했다. 서울시는 이날하룻동안 원호대상자와 동반가족 1명에대해 시내버스와지하철을 무료로 태워주고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공원 나성대 파고다공원등 시립공원을 무료개방한다.



콜레라豫防注射도 부작용

宜寧서 5백명 嘔吐소동…7명入院

【宜寧】경남 宜寧郡 宮柳面의동중학교(교장 배기준)학생5백명이 콜레라예방주사를 맞은후 갑자기 열이나고 머리가 아프며 구토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4일 상오10시부터 하오1시까지 의동중학교 학생6백93명중 5백10명이 학교에 출장온 宮柳面보건지소(지소장 배기곤) 보건요원전효자양(27)과 이남순양(27)등 2명으로부터 콜레라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오3시부터 갑자기 몸에 열이나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구토를해 학교측이 보건지소에 연락, 응급치료를 의뢰했다.

보건지소는 학교로 달려와 부작용을 일으킨 김남이양(16·3년)등 1백10여명을 학교내숙직실과 양호실등에 분산, 림게르주사를놓고 치료한다음 밤11시께 귀가시켰으나 이중 김양등 7명은 상태가악화돼 4일하오 7시께 외령읍내에 있는 박공회의원에 입원가료중이다.【聯】

印尼에 콜레라 9명 목숨잃어 백51명은 治療중

【자카르타4日AP=聯】인도네시아 동네세르순다스 지역에서 10일전 발생한 콜레라로 지금까지 9명이 목숨을 잃고 1백51명이 공공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있다고 이 지역의 보건당국책임자가 4일 발표했다.

에두·루마네파바사는 또 50명의 환자가 수일간의 집중치료를 받은뒤 귀가조치됐다고 말했다.

3母女 피살사건 숨진夫人친척 容疑者로추적

서울西大門區 冷泉洞 3모녀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새벽 숨진 李君子씨의 가까운 친정친척 金모씨(25·전과2범)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간의행적을 캐고있다.

경찰에의하면 金씨는 지난달 15일께 물건과 현금등을 챙겨 충북淸州집을나간뒤 행방을숨겼는데 경찰이 金씨를 용의자로 보는 것은 李씨의 아들 洪圭군이『이날9시께 영태삼촌이 대학생아저씨[illegible] 집에 찾아와 어머니와 돈얘기를나누다다퉜다』고 진술했고 金씨가 평소에도 李씨집에 자주들렀다는집주인 李씨의 진술에따른것.

金씨는 지난달 27일하오10시께는 李씨집에 찾아와 숨진 李씨와 2시간동안 얘기를 나누며 서울에서 구입한 신발값 1백60만원에 대해 상의를 했었고 28일상오에도 李씨집에 찾아왔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383·2861

받들자 희생정신 보살피자 원호가족

원호의달 표어

戰警隊員이 난동

群山서 M16亂射… 住民 1명死亡

【群山】5일 하오2시10분께 전북群山市 永和洞1 냉면집 입갑옥 2층내실에서 ○○전경대소속 서해봉일경(23)이 교제중이던 이냉면집 주인 김모여인(45)의차녀 김인복양(21·이리원광대사대 음악교육과 3년)을 M16소총으로 쏴숨지게 하고 자신도 복부를 쏴 자살했다.

서일경은 지난해 8월부터 사귀어오던 김양으로부터 성격이 맞지않으니 잊어달라는 편지를 받은후 4일 소총을 휴대하고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35년生 암소가 새끼受胎 화제

【馬山】35년생된 최장수 암소가 또 새끼를 수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남咸安郡漆北面榮東里신은곤씨(50·농업)가 사육하고있는 이암소는 현재 분만을 10여일앞둔 만삭이지만 건강한상태라는것.

이암소는 지난48년3월께 이곳에서 20km떨어진 咸安郡山仁面釜峰里에 사는 성문경씨(61)집에서 태어나 26년간 길러진뒤 그동안3사람의 소유주가 바뀌어 80년11월부터 현주인신씨가사육해왔다.

무게 3백50kg, 키1.1m인 이암소는 목과 가슴에 30여개의 주름살이있으며 32개의 이빨중 8개만 남아있고 가죽은 엷은 황색에 은색을 띠고있는데 그동안 30여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한편 이암소를 확인한 경남대 李종태교수는 문헌상으로는 지금까지 26살된 소가 최고령이며 일반적으로 수명은 20살전후이나 이 암소는 전각(뿔생긴)과 이빨등을 볼때 30살이상된 세계최장수 소임에 틀림없다면서 현재의 건강상태로 보아 4~5년 더 살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聯】

「淫亂 여관」 3곳 적발

大邱, 桃色테이프 放映

【大邱】대구시경은5일 여관에 비디오를 설치, 투숙객들에게 음란 테이프를상습적으로 관람시킨 뉴 신라여관대표 李錦花여인(36·대구시東區新岩洞4區257)칠보장여관대표 李是應씨(59·대구北區七星洞2街302)백화장여관대표柳正圭씨(36·대구中區南山1洞605)등여관주인 3명과 이들에게 음란테이프를 판매한 ○비디오상사대표 朴致根씨(○·대구南區大明洞8區2033)성도전자 상사대표 許成淳씨(34·대구中區三德洞4)등 업자2명등 모두 5명을 음반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등 여관주인 3명은 지난4월20일부터 지난3일사이 자신들이 경영하는 여관안내실에 비디오 1대씩을 설치한뒤 객실에 있는 컬러TV와 따로 전선을 연결,음란테이프를 돌려 남녀 투숙객들에게 상습적으로 관람시켜온혐의이다.

그런데 뉴신라여관은 객실 7개소, 칠보장여관은 19개소, 백화장여관은 14개소에 컬러TV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요청이 있으면 밤에는 물론 낮에도 음란테이프를보여주었다는것.

또 許씨와 朴씨등 업자2명은 지난4월중순에서 5월사이 이들 여관주인들에게 음란테이프 4개를 4만8천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聯】

비둘기 할머니

서울 光熙洞 李鶴女씨

다친놈 치료해주다 因緣…이젠 "2백食口"

『비둘가!』『비둘가!』비둘기할머니 李鶴女씨(69)의 목소리가 들리자 2백여마리의 비둘기가 기다렸다는듯이 인도로 내려앉았다. 이제는 너무친해 차라리「손자」같은 비둘기에게 보리쌀등 먹이를 주자 더러는 먹이통위에 걸터앉아 욕심을부리기도 하고 아예 할머니 머리위에 앉는 비둘기도 있다. 하지만 손자와 다름없는 비둘기식구를 맞는 할머니의 표정은 밝기만하고 시내 어디를가도 편하게 배를 채울곳이없는 비둘기들의 마음도 푸근하기만 하다.

◇2백여마리의 비둘기「손자」에게 먹이를 주고있는 李할머니。비둘기할머니 4년에 정이들어 이젠 하루도 집을 떠날수 없다고했다。

서울 中區 光熙洞239앞 인도。위로는 光熙고가도로가 지나고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무숲하나없는 삭막한 도심이다。귀를 찢는듯한 자동차의소음만 들릴뿐이다。

먹이 장만에 밤잠설치며 4년째 "孫子"처럼

삭막한都心 人道는 마치動物園

스토리

비둘기할머니 李씨가 이처럼 삭막한 곳으로 하루두차례, 새벽과 점심때마다 그많은 비둘기들을 모으기 시작한것은 지금부터 4년전의 일。

30여년동안 이곳에서 포목상을 경영해온 李씨는 79년 3월 어느날 가게앞에 앉아있다가 다리를 다친 비둘기 한마리를 발견했다。 전봇대 밑에 떨어져 날개를 퍼득거리는 비둘기를 데려온 李씨는 조그만 새집을 사다 넣어두고 다리에다 머큐러크롬과 마이신을 발라 붕대를 감아주었다。 끼니때면 보리쌀과 빵조각을 잘게 썰어 넣어주고 어린 자식처럼 보살폈다。

그러기를 한달。정성은 헛되지 않아 처음 뒤뚱거리며 자주 넘어지던 비둘기는 새장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닐정도가 됐다。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제비처럼 李씨는 비둘기를날려보냈다。

이때부터 비둘기는 매일친구들을 불러모아 아침 점심때만되면 李씨집 지붕위로찾아들었다。

李씨는 비둘기가 섭섭한몸으로 친구들과 함께 날아들자 반가운 마음에서 먹이를 인도위 전봇대 밑에다 갖다놓아 줬다。

그러자 찾아드는 비둘기들은 매일 그 숫자가 늘어나더니 1년여만에 1백여마리가 됐다。

날아온 비둘기 가운데 날개죽지가 부러진 놈은 데려다 치료를 해주고 다리가 묶인 비둘기들은 래커를 풀어주는사이 친하게됐다。

李씨의 일과는 이때부터귀여운 비둘기손자들을 위한하루가 됐다。

새벽4시무렵과 하오1시등 두차례의 먹이를 주는시간외에도 밤이면 먹이를 만드느라 신경통까지 얻었다。

2백이나 되는 식구들을먹이는데 드는 돈만도 한달에 5만원이 몽땅 달아난다。

틈만나면 근처 빵가게등을 뒤져 빵조각을 얻어와서는밤새 칼로잘게썰어 두어야하고 김장때가 되면 이웃을돌며 고추씨도 모았다。

이같은소식이 전해지자 동네사람들도 李할머니를 돕기시작, 근처 재건대원들은 과자부스러기를 모아다 주기도했다。

李할머니의 정성은 모이를 장만하는데 끝나지 않는다。

욕심많은 비둘기는 쫓아주고약한비둘기는거둬먹여야한다。먹이를 주는 시간이면 다 먹어 치울때까지 자리를 빌수가 없다。

동네 개구장이들이 해코자 못하게 지켜야 있어야하고 인도위를 지나는 행인들이 쫓지 못하도록 신경도 써주어야한다。

뿐만아니라 지저분하게 먹고난 뒤끝에는 남은 먹이를 쓸어 모아야 하고 인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은혜를 잊지 않고 날아드는 비둘기들이 기특하다는 李할머니는삶이 풍퉁하게 쩌듬만한 비둘기를 안아보이기까지한다。

『머리맡에 항상 보리쌀자루가 놓여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는 李씨에게는 말못할 고민도 없진않다。

길가는 사람가운데는 날짐승에게 곡식을 먹인다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는것。

그래서 보리쌀을 미리 팔아둔뒤 채소잎으로 가려두기도하고 고추씨앗을 섞어둔다는것。

『가끔 동네 쓰레기통을뒤지는 비둘기를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는 李씨는 서울도 이제 외국처럼 비둘기가 어디를가도 먹을것이 풍부하고 쉴곳도 있는 도시가 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朴珍烈기자】

버스회사 横暴 地方학생 골탕

舊승차券내면 "2장내라" 억지

서울에 살면서 水原이나 仁川등 다른도시의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학교가있는도시의 회수권만 구입할수있어 주거지도시에서는 일반버스요금을물어 부담이 크다.

서울江西區木洞에 살면서 仁荷대학교에 다니는 金相基군(22)은 통학때 서울시내 버스를 하루2회씩타지만 서울시버스조합에서판매하는 학생회수권은 서울시내소재대학에만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일반요금 1백20원을내야 70원씩 추가부담한다고불평했다.

더구나 학생승차권이 60원이었을때는 현금승차가 70원으로 차액에 10원밖에 안돼 큰부담없이 현금승차를 했으나 학생요금인상후는 차액이 커 큰부담을 안겨주고있다.

또 교통부는 지난1일부터 시내버스학생요금을 85원으로 올리면서 60원짜리 종전승차권에 인상차액인 25원만더내면 오는 20일까지버스탑승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나 일부 지방에서는 버스안내양들이 구승차권을 사용하려는 학생들에게 현금(1백20원)승차를 종용하거나 2장을 내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아 시비가 잦다.

이같은 사실은 光州시내67개 중·고교가 교감회의를열고 버스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주도록 건의함에따라 밝혀진것.

女中生이 放火 忠南女中 화재

【大田】충남여중 연쇄화재사건을 수사중인 大田경찰서는 5일 이학교 2학년 정모양(14)을 검거,공용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양은 지난1일과 2일 이틀간 치른 종합시험성적표를 3일 담임선생몰래 훔쳐내 점수가 낮은 과목의 점수를 높게 고쳤다가 발각돼 심한 꾸지람을 들은데 앙심을품고 3일밤9시30분께 1학년6반 교실문을 머리핀으로 따고 들어가 교탁밑에 휴지를모아 불을지른뒤 4일새벽0시30분에도 1학년10반 교실에들어가 불을질러 9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이다.【聯】

32년만의 奇蹟

6·25參戰 상이용사 朴錫濬씨

肺에 박힌 彈丸 기침하자 튀어나와

기적이란 참으로 불가사의다。32년동안이나 폐에 박혀있던 탄환이 기침한번으로 튀어나오다니….

이거짓말같은 사실은 지난달26일 서울九老區梧柳洞국립원호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일。

탄환이 몸에박힌채 32년을살아온 사람은 상이용사 朴錫濬씨(51·사진·경기城南市倉谷洞59의8)。

朴씨는 6·25가 나던해 18세의나이로 입대했고 로키트포 사수로 전선에 배치되었다。朴씨는 경북永川전투에서 피격, 오른편 허파에 북괴소총탄환이 박힌채 후송되었다。

그러나 적탄이 박힌 부위가 심장에서 불과 5mm 떨어진 곳이어서 제거수술이 위험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그후 이 적탄은 朴씨의 한평생을 괴롭혔다。

날이 궂으면 온 전신이 쑤시고, 각혈을 하는등 폐렴 증세까지 보였다。병원、약국을 찾은 것이 수백번이 넘었다。그러나 의사들은 그때마다「수술이 위험하다」고판단, 응급처치만을 해 주었다。

고통에 견디다 못한 朴씨는 지난5월 중순、최후의 각오로 국립원호병원에 입원、담당의사로부터「수술을 해보자」는 승낙을얻어냈다。

朴씨는 수술 하루 전날인 26일에도 침대에 누워『한달만 있으면 또6·25가 돌아오는구나』하고 생각끝에 낮잠이 들었다。

朴씨는 잠속에서 형언할수 없는 영혼의 힘을 느끼는 순간 내장이 솟아져나오는듯한 고통과 함께 기침을 했고 기침끝에 새끼손가락만한 탄환조각을 피고름과 함께 토해냈다。

32년간 체내에 박혀있던 적탄은 삭고 녹이슬어 만지는 대로 부스러져 나갔다。朴씨는 이제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이 탄환부위의 염증만 치료하면 2~3주 후에는 퇴원할 수있다。

민족의 비극 6·25가 모든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비극은 깊고 크지만 朴씨의 6·25전쟁은 이제야 끝난것이다。

『후련하다』며 恨많은 적탄을 노려보는 朴씨는『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라는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李晩薰기자】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오.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동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 (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體力·個人技등「한수」높아

대통령盃 國際축구 한국、和蘭에 2-0完敗

丁海遠「굴러온 떡」놓쳐

守備막강 得點기회못만들어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가 9개국1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5일하오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첫날 許丁茂가 임시주장으로나선 네덜란드의 PSV아인트호벤은 월등한 체력과 개인기를 살려 전후반1골씩을 뽑아 한국대표를 2-0으로 완파하고 1승을 올렸다. 대회는 10개팀이 A·B조로 나뉘어 서울·大邱·釜山·光州·淸州·仁川을 순회하며 14일까지 예선리그를 벌인후 각조상위 2팀이 준결승전(16일)에 진출, 패권을 가리게 된다.

許丁茂 임시主將으로 出戰갈채

全斗煥 대통령의 시축으로 시작된 한국-아인트호벤 개막경기에서 한국은 전반43분 문전 로빙볼을 헤딩으로 따내다 실패, 수비실책으로 문전을 뚫려 선제골을 허용했다。 네덜란드 대표선수인 FW레네·퀘크호프는 한국 페널티에리어 오른쪽에서 張外龍을 제친후 슛, 볼은 오른쪽 골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오면서 골문을 지키고 있던 스위퍼 朴成華의 어깨에 맞고 골인됐다。

아인트호벤은 후반20분께 한국진영 오른쪽을 기습돌파한뒤 문전중앙지점서 FB빌트슈트의 강슛으로 2-0으로 앞선이후 게임을 압도, 한수위의 전력을 과시했다。

한국은 전반 중반까지는 슬로템포의 아인트호벤을 맞아 대등한경기를 펼쳤으나 후반에 접어들자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 여러차례 실점위기를 맞으며 고전했다。

이날 아인트호벤의 지역수비는 두터웠고 한국은 개인기와 스피드서뒤져 좀처럼 득점기회를 만들지못했다。

丁海遠은 후반10분께 아인트호벤 문전서 결정적 슛을 날렸으나 볼이 크로스바를 넘겨 굴러들어온 떡을 놓쳐 버린 경기였다。

한말로 전력의 차가 두드러진 경기였다。

◇첫날전적

▲A조

아인트호벤 2 (1-0, 1-0) 0 한국대표
(1승) (1패)

◇全斗煥 대통령이 대통령盃국제축구대회에 참석, 始蹴을 하고있다。

◇개막경기 한국대표와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의 접전。 FW丁海遠⑯의 슛을 아인트호벤 GK 피스불크가 점프하며 막고있다。

한국		아인트호벤
㉑鄭聖敎	GK	피스불크 ①
⑧朴景勳	FB	알테 ⑰
⑬張外龍		슈테벤스 ⑮
⑥朴成華		브란츠 ④
		(⑲란스벨겐)
⑤崔景植		빌트슈트 ②
④趙廣來	HB	룩크호프 ⑩
⑮李康助		許丁茂 ⑫
(⑳李泰昊)		
⑱黃石根		포르트브리트 ⑤
(⑦鄭鍾洙)		
⑪邊炳柱	FW	레네켈크호프 ⑦
⑨崔淳鎬		겔스 ⑨
⑯丁海遠		토레젠 ⑧

西獨팀 2連勝 「저펜컵」蹴球

【東京支社】西獨의 베르더 브레멘팀은 4일 東京서 열린 저펜컵 국제축구대회에서 싱가포르대표팀을 6-1로 대파, 2연승을 올렸다。

이날 고오베市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로테르담·페예노드팀(네덜란드)은 日本실업 챔피언 니쁜·고깐(日本鋼管)을 2-0으로 제압, 1승1패를 기록했다。

고메스、타이틀防戰 오는11일 로페즈와

【라스베가스3日東洋=聯合】프로복싱WBC(세계권투평의회) 슈퍼밴텀급 챔피언인 푸에르토리코의 윌프레도·고메스는 오는11일 라스베가스에서 멕시코의 환·안토니오·로페즈와 타이틀방어전을 갖는다고 돈·킹프러모터가 밝혔다。

고메스는 지난78년4월 슈퍼밴텀급 타이틀전에서 로페즈를 7회 KO로 물리친 바 있다。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프로야구

尹東均 2點홈런

OB 7連勝 홈팀 해태눌러

앞으로 7승。프로야구 첫 우승을 노리는 OB베어스는 5일 全州에서 노장 尹東均이 3회초 2점홈런을, 柳志烜이 7회초 솔로홈런을 날리는등 집중8안타로 홈그라운드의 해태타이거즈를 7-0으로 대파하고 쾌조의7연승을 올렸다。

OB의 왼손잡이 鮮于大泳은 9회동안 산발4안타、무실점으로 해태를 완봉、OB를 22승7패로 끌어올렸다。OB는 해태에 4전전승의일방우세를 보이고 있다。

선두OB를 뒤쫓고있는 三星라이언즈는 釜山 九德경기장서 17안타를터뜨려 6안타의 홈팀 롯데자이언츠에 13-3으로 대승、20승 12패를 기록했다。

三星은 여전히 3.5게임차로 OB를 뒤쫓고있다。

이날로 해태는 5연승가도에 브레이크가걸렸으며 롯데는 7연패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있다。

한편 大邱에서열린 MBC靑龍과 三美수퍼스타즈와의 대전서는 三美가 11-4로이겼다。

◇5일 전적

◆全州

OB	020	010	010	7
해태	000	000	000	0

▲홈런=尹東均(3회·2점)柳志烜(7회·이상OB)

◆釜山

삼성	201	061	030	13
롯데	000	111	000	3

▲홈런=金貞洙(4회)鄭文璧(5회·이상 롯데)

◆大邱

MBC	011	000	002	4
삼미	000	029	00×	11

▲홈런=梁承瑲(6회·3점)

投해머世界新 蘇선수、83m98로

【모스크바5日聯合】蘇聯의 세르게이·리트비노프(24)가 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육군체육대회 육상 투해머에서 83m98을 던져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고 蘇聯관영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종전의 투해머 세계기록은 蘇聯의 유리·세디크가 세운 81m80이었다。

이적료7백70만弗 年俸은 25만달러 마라도나

【알리칸테(스페인)4日聯合】스페인의 명문 축구구단인 FC 바르셀로나는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 디에고·마라도나(21)를 스카웃하기위해 7백70만달러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마라도나에게 연봉25만달러를 보장키로 확정했다。마라도나는 5일 바르셀로나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르셀로나 FC로의 이적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流星의 賦 <40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⑳

홍계남이 그 전투의 소식을 들은것은 만사가 끝난지 사흘 후의 일이다。

계남은 조헌이 왜 자기에게 전갈하지 않았는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되었지만 조헌의 깊은 뜻을 이해할수 있을것 같기도 했다。

조헌은 스스로 필패의 전투라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 전투에서 보여줄 의기(義氣)가 민족을 분기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알고, 그야말로 의기의 싸움을 관철했다。그런까닭에 홍계남까지 끌어들여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그리고 이 짐작은 옳았다。

전투는 실로 처참을 극했다。

적은 조헌의 군사가 얼마되지않고 후속부대가 없다는 것을 탐지하곤 17일밤 성중의 병사를 전부 성밖으로 보내어 공격군의 배후를 찌를 계획을세웠다。그렇게하여 18일의 아침이 되자 성안의 병력을 총동시켜 우리군사를 협공하기 시작했다。

조헌이 높이 외쳤다。

『오늘엔 다만 일사(一死)가 있을뿐이다。제공 생을 도모하지 말지니라。오직 의(義)의 일자(一字)를 부끄럼없이 할지어다』

전참봉 조광윤은 향병(鄕兵)을 이끌어 선두에서 싸우다가 죽고, 조헌의 아들 완기(完基)도 이싸움에서 죽었다。봉사 임정식(奉事·任廷式)은 척후장(斥候長)으로 나가있다가 전세불리하다고보자 단병(短兵)으로 적중으로 뛰어들어 적병 수명을 단숨에 죽이고죽었다。사인 이려(士人 李礪)의 전사도 장렬했다。그는영상 이택(領相 李鐸)의 손자로서 명학독행(明學篤行)한 선비였는데 솔선 의병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사인、김절、만호、변계는 각각 사했고, 온양현감 양응춘은 마상전으로 분투하고、봉사 곽자방은 육모 곤장으로 적을 뉘었으며, 무인 김헌은 마상의 적이 휘두르는 창을 빼어 그의 목을 잘랐다。부장 김인남은 적의말을 빼어타고 사자분신의 활약을 했다。그리고는 모두 장렬한 전사를 했다。

무인 박봉서、부장 이인현、무인 황삼양등의 활약도 눈부셨다。부장 박춘등은 성벽을 선등(先登)한 용사였고、사인 한기는 수십명을 죽였으며, 부장 박찬의 활약도 대단했다。

사인 박사진, 김선복, 복응길, 신경일, 서응시, 윤여익, 김섬원, 박혼, 조경남, 고명조, 강명조 등은 혹은 문(文)으로서 또는 학행(學行)으로 조헌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혼신의 용력을 다해 싸우다가 모두 대의에 순절했다。

의사들이 이처럼 다음다음으로 죽고 드디어 조헌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었다。제가 가운데 그의 탈출을 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그러자 그는 자약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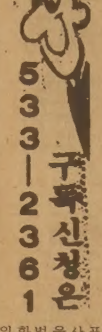
『이곳이 내가 죽을 자리니라。장부 국란을 당하여 어찌 구차하게 삶을 구하리오』

이어 독전(督戰)을 서두르다가 그는 이윽고 장렬하게 죽었다。

계남은 조헌의 장렬한 전사 장면을 거듭 들어보곤 수연히 말했다。

『진실로 장부다운 어른이 죽었구려。그러나 그의 뜻은 천년 만년 죽지 않을테니 우리 모두 그의 뜻을 배워야…』

이 전투에 적이 이겼다고는 하나 그들의 손해도 막대했다。시체를 태워 없애는데만 사흘이 걸렸다니 말이다。그리고 드디어는 금산성에서 적들은 철수하고 말았다。


533-2361 구두신청은

海外演藝

製藥社·映畫社시비

○…할리우드와 대제약회사간에 영화내용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얼마전 상영된『나는 될수 있는한 빨리 춤추고 있어』라는 영화는 신경안정제인 벨륨의 중독위험을 강력히 시사한 작품이었는데 이 영화가 나오자 벨륨제조사인 호프먼·라·로슈사는 영화제작사인 파라마운트에 항의서한을 무더기로 보내는 소동을 벌였다。다행히(?)도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제약회사의 큰 시름을 덜어준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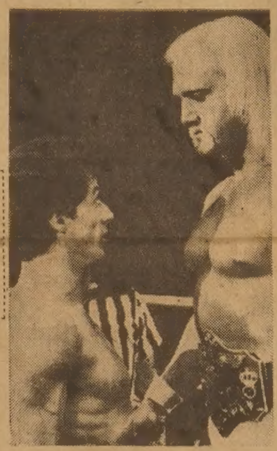
터키、監督송환요구

○…82년도 칸국제영화제에서 미국영화 「미싱」과 함께 황금종려나무상을 받은 터키영화 「욜」의 감독 일마즈·귀니를 본국에 소환해달라고 터키관리들이 26일 프랑스와 그리스에 요청했다。

귀니는 살인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해 10월 탈옥했는데 지난주 칸에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지중해 분명에 관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리스의 히드라섬으로 떠났다。

귀니는 탈옥후 그가 감방에 있는동안 잡지에 발표한 글이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궐석재판에서 7년6개월、「터키의 권위를 해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5년의형을 더 선고받았다。【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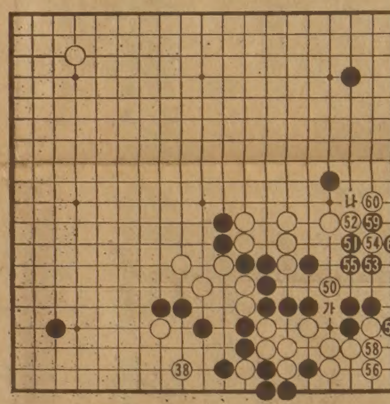


◇「로키Ⅲ」의 한장면。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6譜 50~61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人) 曺薰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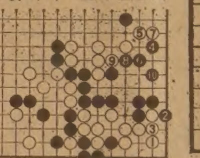


白50의 싯점에서 觀戰子는 黑이 틀림없이 큰일날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결과부터 말하면 黑은 白50덕분에 오히려 61까지 맛좋게 살아버렸던 것이다。

물론 시초에는 名人도 긴장했다。그러나 7분만에 黑51로 달려가고 白52(9분)때 黑53이 24분。6분이걸린 白54에 대하여는 10분간 검토했을뿐 그뒤부터 피차 노타임인데 이동안 약간 초조해 보이는 도전자에 비하여 名人은 한결 가벼운표정이었다。국후에 양자가 다같이 白50을 공연한소찌검이라고 지적하고 단자들도 조급한수라 입을모았다。

白50、似而非急所

白50이 악수인까닭은 첫째 선수가되지않고 또 가령 黑이 곱게「가」로 이어도 50은 두나마나다。따라서 白50은 참고도의 白1에 후수치고 黑을 10까지 후수로살려준 다음 白11이면 우선 실전보처럼「나」의斷點도 남지 않았을 터이니 이른바 천양지차가 생겼을것이다。【一凡】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2 : 0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예배시간 주일오후 2시반 수요예배 오후 8시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정성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데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전화 : 259-1585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 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수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조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미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 수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윤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병 식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성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김 영 수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신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직원모집(6명), Steeles & Warden Area
약간의 영어를 구사하실수 있는 여자분으로 가벼운 공장일(Neither dirty nor heavy)을 하실분, 처음 Starting Pay는 시간당 $4.50이며 특히 아래주소근처에 사시는 분이면 더욱 좋겠읍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직접 475-8748(Mr. Magi)로 연락하시거나 한국일보 Miss 박을 찾아 문의하십시요.
100A Gibson Dr. Markham, Ont.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Cashier 구함
Downtown(토, 일) 전화: 461-5242

지렁이잡이 하실분 구함.(동부지역) 오후 5시에서 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264-3758 (Mr. 최)

경험있는 Cashier Part Time 구함.
주 2일정도 (Jane×Finch 지역)
전화 : 665-3825 오후8시이전 연락바람

충북 영동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백경희, 탁명순을 찾음.
연락전화 : 533-0489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 있으신분 구함
전화 : 665-8233

가게 Helper 구함. (남자)
Eglinton & Bathurst Corner
전화 : 787-6970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535-2798, 233-9454
781-9591 (저녁 6시 이후)

여권 분실

여권 분실
여권번호 : R 309356
발행일자 : 79년 7월
소지자명 : 홍정숙(동반자녀: 이준형(남),이시영(여))
분실날자및장소: 82년 1월23일 아리랑식당 뒷쪽 주차장
연락처: 335-0513 이상덕

여권번호: R 296574
발행일자: 1979년 4월 23일
소지자명: 김 익균
분실날자및 장소: University & Dundas(81년 6월경)
연락처 : 743-2373

구 직

저희 집에서 애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Jane & Finch) 전화 : 661-7891

Baby Sitter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전화: 245-8373 (Mrs. 박)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BUSINESS 안내

1) 작고 알찬 Variety Store
Pape & O'Connor 네거리에 있음. 작년주매상평균: $4,600
그외 로타리오 머신에서 순수입 월 $800이상.
렌트: $500, 리스: 2년+5년, 아스킹: $40,000

2) 처음 혼자 해보실 분에게,
3410 Kingston Rd. M & P Milk Store로
들려보십시요. 렌트: $300, 새리스: 5년+5년이 가능하고 경쟁자 없음. 봄 여름에 정원용 Business를 별도로 할수 있음. 주매상: $2,500 아스킹: $15,000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1919 Lawrence Ave. E. Tel: 752-3111
곽 석 용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전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모든 면허가 나와 있는 Restaurant(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 조건의 Rent와 Long Lease, 좌석: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656-9503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5년.
렌 트 ; $698, 가격 : $45,000+스탁.
위 치 : East of Jane & Bloor지역
주 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 있으신 분의 내방요망. 주중 9:00a.m~18:00p.m

이훈모 부동산
1) Variety Store 매매 (짧은 영업시간)
주매상: $4,000, 렌트: $850 리스: 5년+5년
아스킹: $40,000 (2 Bed Room 아파트 포함)
2) Donut Shop
주매상: $6,500 아스킹: $220,000
리스: 20년, 다운페이: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225-1204)
전화 : 225-1204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전망좋은 지역으로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호텔을 아파트먼트로 개조한 건물 팝니다.
(5 아파트먼트 & 1 Store)
자세한 문의는 전화 : 846-0800 (Hogg)
Royal City Realty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가게 매매"
Discount Variety Store
주매상: $3,000. 현 영업시간은 8시간이나
앞으로 원하는 만큼 길게 할수도 있음.
962 St.Clair Ave. W.
전화 : 654-4410 Vatale

Cash Register Sharp
ER-2533 전화: 364-7943

---

1) 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 인 햄버거 숍
주매상: $8,000 리스: 4년 + 옵션
렌트: $1,700 아스킹: $350,000
2) Variety & Gift Shop (건물포함)
토론토에서 30 mile 거리에 있음.
년매상: $600,000 아스킹: $420,000
3) 사무실 Building안에 있는 미장원
주5일 오픈, 주매상: $1,500 리스: 6년
아스킹: $45,000
4) 그외에 시간짧고 운영간소한
Fast Food & Take Out 비즈네스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영업시간이 짧은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000
전화 : 531-1155 낮 12시 이후 연락바람.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죠지)

대지(Cottage용으로 적합) 매매. Best Offer
Midland Area (Barmbeach) 넓이: 50ft × 120ft.
(Toronto에서 80mile 거리) 전화 : 922-2966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급 매"
세탁소와 Bakery(Plaza안에 있음).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4020 Dundas St. W.

꽃집매매. 조그마한 자본으로 이윤높은 꽃가게.
바쁜 지역으로서 Parking장도 있음.
가격 : $7,900. 전화 : 698-9188 (마이클)

Convenience Store 매매
◉오샤와 지역 ◉렌트: $185 ◉리스: 4년
◉Whitby 지역 전화: 282-7596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가정 형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손석빈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191 Lakeshore Blvd.(레이크쇼×로얄욕) 전화: 255-4715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